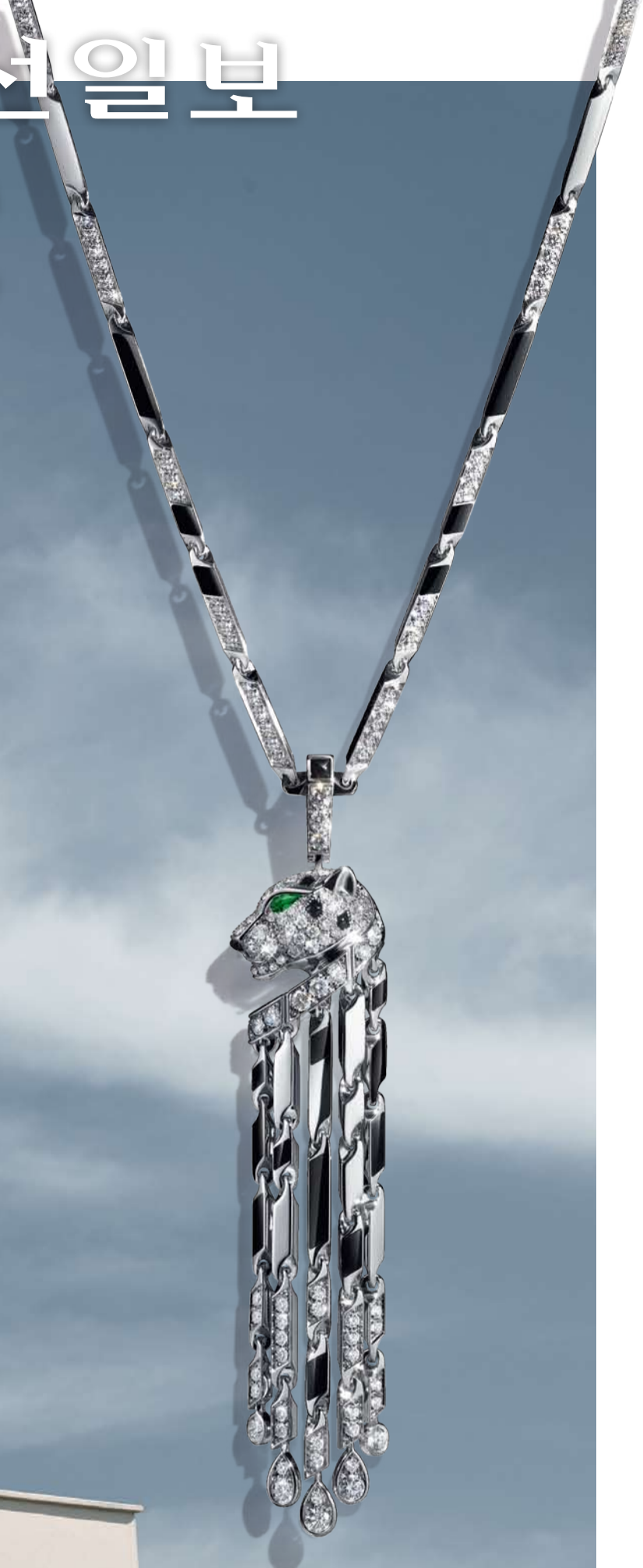


# Style

조선일보

FEBRUARY  
2022 vol.232



*Cartier*

#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Fascinating Zip*  
Necklace, transformable into a bracelet,  
coloured sapphires and diamonds.



“ONCE I DREAMED TO BECOME  
THE FASTEST DRIVER.  
TODAY, I AM A DRIVER OF CHANGE.  
I AM A BIG PILOT.”

LEWIS HAMILTON, 7 TIME FORMULA 1™ WORLD CHAMPION

# THE BIG PIL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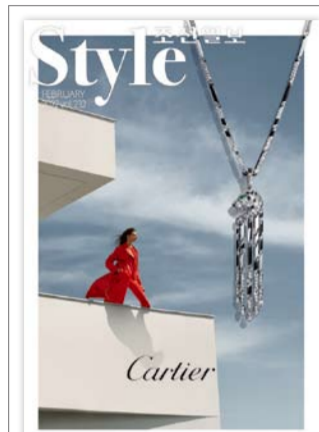
**BIG PILOT'S WATCH 43**

Bold, iconic and genuine: 빅 파일럿 워치는 열정, 목적과 창의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타임피스입니다. IWC는 항공 워치의 필수적인 요소를 모두 한 곳에 담은 타임피스를 최초로 43mm의 케이스로 선보이며, 조종석 계기판 디자인 본연의 순수함과 탁월한 인체공학기술, 그리고 돋보이는 다채로움을 선사합니다.

**IWC**  
SCHAFFHAUSEN



14 16



1914년 탄생해 까르띠에의 대표적인 아이콘이 주어진 컬렉션으로 자비 잡은 팬더드 까르띠에, 본래 야생적이미지의 팬더가 까르띠에를 만나 카리스마 넘치거나, 때로는 장난스러운 팔색조 같은 매력을 자랑하며 강렬한 궁정 에너지를 발산한다. 표지의 팬더드 까르띠에 네크리스에는 18K 화이트 골드 에 에메랄드, 오파스, 그리고 총 2.07캐럿의 브릴라이트 컷 다이아몬드를 매혹했다.  
문의 1566-7277



20



10

- 14 **EXPLORING THE SURREAL** 영어로 'surreal'이란 표현은 대개 믿기지 않는, 꿈 같은, 비현실적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팬데믹이 장악한 지난 2년 의 시간도 때때로, 좋지 않은 맥락에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때마침 국내 와에서 초현실주의를 키워드로 삼은 미술 전시가 잇따라 펼쳐지고 있다.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다시 바라보라고 주장하는 초현실주의자들의 의도는 지금처럼 상상력과 지혜가 요구되는 절박한 시기에 더 진한 울림을 자아낸다.
- 16 **EXHIBITION IN FOCUS** 허황된 명상이나 성공에 찬양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묵묵하게 걷은 칼라 사촌의 신구자 서울 레아터 회고전, 20세기 초·중반 작품을 토대로 한국 사진사를 훑어볼 수 있는 기획전 등 서울에서 진행 중인 2개의 사진전, 그리고 부산 을숙도와 명지동에서 각각 향구도시의 아트 신을 물들이고 있는 결이 다른 2개의 전시를 소개한다.
- 17 **FLOWERS FOREVER** 변함없이 반짝이는 꽃의 유혹.
- 18 **DIAMOND KING** 전통만을 위한 우아한 반짝임, 남성 다이아 워치 6.
- 19 **BE MY SWEETHEART** 달콤쌔름한 초콜릿 같은 사랑의 속삭임을 담은 주얼리.
- 20 **OUR OWN MELODY** 함께할 때 더욱 빛을 발하는,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지금 이 순간.
- 32 **LADY DAYS** 변함없이 우아하고 사랑스러운 시그니처백 4.
- 33 **PERFECT WEEKEND** 여유로운 주말, 가까운 근교 여행에 안성맞춤인 트레들 백백.
- 34 **OLYMPIC TIME MASTER** 올림픽과 같은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타인카퍼로 활약하는 것은 단순한 시계 브랜드의 홍보 활동이 아니다. 오메가는 1932년부터 2032년까지 올림픽 공식 타임카퍼로 1백 년간 활약할 예정이고, 계속해서 놀라운 업적을 쌓아가는 중. 이번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은 오메가에 30번째 올림픽이다.
- 36 **LOVE POEM** 고결하고 영원한 사랑에 대한 약속을 상징하는 프리드의 웨딩 링 컬렉션.
- 38 **MEN IN STYLE** 선물하기 좋은, 직판인 실용도 높은 맨즈 액세서리 리스트.
- 39 **GIFT FOR A MAN** 현대적인 감각과 시계의 본질적인 정밀함, 디자인과 강한 끌림을 모두 담아 남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IWC 스포트워치의 빅 피플렛 워치.
- 40 **THE GREAT JEWEL** 로마의 역사와 문화에 기반해 하우스의 무한한 상상력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불가리의 마그니피카(Magnifica) 하이 주얼리 컬렉션. 화려한 유색석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주얼 세공 기술, 그리고 현대적인 디자인이 앙상블을 이룬 황홀한 주얼리의 세계로 초대한다.
- 42 **BEAUTY AHEAD OF TIME** 세월이 또 한번의 도전으로 뷰티계의 혁신을 선보인다. 가브리엘 샤넬의 상징, 레드 캐멜리아의 강인한 생명력을 담아 탄생한 최초의 홀리스틱 인티에이징 뷰티.
- 44 **ROMANTIC BUBBLE** 연인을 위한 사랑의 묘약, 브뤼 샴페인.
- 45 **LUXE FOR CARE** 귀한 성분과 첨단 피부 과학이 만나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효과를 선사하는 독보적인 스킨케어 라인업.
- 46 **EDITOR'S PICK**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피부를 위한 새해 첫 솔루션.

# Style 조선일보 Issue.232 February 2022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정희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성정민 sjm@chosun.com  
 이주이 juyi.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민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정희 i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 김한기 hngkim@chosun.com  
 재무 | 권신비 분해, 재민 | 리은 인쇄 | 타라티피에스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라온 비즈나스센터 110호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시,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각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동성만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허시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SWISS PERFECTION**  
MONTREUX

The True Swiss Cellular Skincare Active Irida®  
www.swissperfection.com



# WHITE DREAM

# 한 방울의 스킨 테라피

각질 관리에 세심한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겨울, 효과적인 해피 다이아몬드 스위스퍼펙션의 인스폴리에이션 솔루션을 소개한다. 고유의 셀룰라이드와 아미노산이 주축이 되어 민감 피부, 다래, 블랙 헤드, 나뭇잎 등 모공 정화와 각질 관리, 피뎀 개선에 효과적인 성분을 최적으로 배합했다. 인위적인 방법이 아닌 피부의 자연 치유 과정을 촉진하는 순하고 확실한 방법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이상적이다. 30ml 17만7천원, 문의 1644-4490



새하얀 눈처럼 로맨틱한 무드를 자아내는 진주의 매력,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타사키 스타라드 링 담수 진주를 채인 모양의 18K 옐로 골드 세팅한 링 2백82만원, 문의 02-3461-5558 프레드 베 데 앙주 링 화이트 비로크 담수 진주 1개와 브릴리언트 컷 화이트 다이아몬드 45개로 장식한 옐로 골드 밴드가 어우러져 우아함을 배가한다. 4백87만원, 문의 02-514-3721 타사키 데인저 링 날카로운 가시를 표현한 18K 옐로 골드에 이코아 진주 8개를 더해 과감한 디자인과 상쾌한 세팅을 동시에 보여준다. 2백85만원, 문의 02-3461-5558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상정민

#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DISCO LADY

팬대를 상징하는 파카 아이씨유 백이 패션 일러스트레이터 안토니오 로페즈의 작품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그의 작품 안토니오 걸을 오마주한 에디션은 알라스트를 이루는 가죽 조각을 한 장씩 재단한 뒤, 겹겹이 재봉하는 정교한 작업을 거쳐 디스코 시대의 화려한 매력을 재현한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킴 존슨은 앤디 워홀을 비롯해 데이비드 호크니 등 20세기 중반을 풍미했던 아티스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은 안토니오 로페즈를 새로운 세대에게도 소개하고 싶었다며 에디션 출시 소식을 전했다. 8만원, 문의 02-514-0652



# HEEL ME



특별한 날 하나쯤 꼭 갖추어야 할 드레스 슈즈, (위부터) 매력적인 그린 컬러의 새틴 소재에 카바드 비블로 장식한 풀렛폼 힐 1백51만원 로저 비비에, 문의 02-6905-3370, 화이트 시린 소재로 유니크한 매력을 부각한 크루즈 컬렉션의 스톱 부츠 2백30만원대 사엘, 문의 080-200-2700, chanel.com, 알코가 날카로운 슬림한 디자인에 크리스탈 장식 스트랩으로 화려함을 더한 벨벳 소재 슈즈 95만2천원 자비루, 문의 02-3479-1837 포토그래퍼 장민영 에디터 상정민



# 파스텔의 유혹

보티카 베네티를 대표하는 조디 백, 2022년 리조트 컬렉션인 워드르보 03 컬렉션에서 새로운 컬러의 미니 조디 백을 선보인다. 브랜드의 정교한 인트레치아토 워빙 기법을 사용해 완성된 라운드 셰이프와 돛 디테일이 특징으로 송이치기주과 양쪽을 함께 사용해 부드러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 봄과 잘 어울리는 은은한 파스텔 컬러로 신뜻한 스프링 룩 연출에 제격. 메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매력적이다. 2백90만원대, 문의 02-3438-768



# COUTURE TOUCH

한뼘 한뼘 하우스의 장인 장이 깃들 립스틱 3, (위부터) 에르메스 루즈 에르메스 립스틱 로즈 마린 74 리미티드 에디션 매종 특유의 감각적인 컬러를 입힌 케이스에 감싸고 목발적인 핑크 로즈 마린을 담았다. 지속가능성 케어로 밀링경 시대 필수 10ml, 3.5g 958천원, 문의 02-310-5174 보아네 루즈 리퀴드 #501 옐로우 아웃 리치, 야간간 오일 추출물을 함유한 크림 텍스처가 부드럽게 녹아 입술에 영장감을 가득 채워준다. 레이어링할수록 강렬해지는 발색과 광택이 매력적인 립을 완성해준다. 3g 8만2천원, 문의 02-310-5025 자황시르 루즈 루즈 립스틱 #333 매종의 시그니처인티노나 백을 모티브로 한 블랙 핑크 소재의 감각적인 패키지가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피부 톤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레드 셰이드, 풍부한 하얗부룬산 포몰러 덕에 촉촉하게 밀리며, 무려 12시간의 지속력을 자랑한다. 3.4g 5만4천원대, 문의 080-801-9500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이수이 아시스트 배서현

# 권아람, 'WALLS'



대다수 현대인의 일상을 점유하고 있는 디지털 스크린, 엄연히 물리적 실체로 작동하면서도 우리를 가상 세계로 이끄는 장차. 제2회 송은미술대상을 받은 권아람 작가는 자본의 논리 아래 욕망의 과육이 된 스크린이 단순한 이미지를 실어 나르는 매체가 아니라 욕망이 순환되는 통로로 작동하는 데 주목했다. 허공에 걸린 조각난 스크린 에 거울을 결합한 작업 '월스(Walls)'(2021)는 푸르고 붉은 빛을 발하는 스크린이 점멸을 반복하다가 휴면되는데, 이는 네트워크를 따라 공허하게 떠도는 인간의 정보화된 욕망이 허된 오류임을 암시한다. 송은문화재단 신사옥 (ST송은빌딩)의 개관전 2부로 진행 중인 (제2회) 송은미술대상전에서 권아람 작가를 포함해 본선 참여 작가 20팀의 작업 세계를 엿볼 수 있다. 오는 2월 12일까지.



# FOR THE QUEEN

남다른 감각을 지녔던 조세핀 황후에게서 영감을 받은 쇼메의 조세핀 컬렉션은 고유의 섬세함과 우아함이 깃든 작품 같은 주얼리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특히 조세핀 아그레드 인피리얼 컬렉션은 센터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반짝이는 클라시컬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페어 셰이프 다이아몬드를 아껴 해 완벽한 대칭과 균형을 이루어 조세핀 황후의 기품을 그대로 드러낸다. 다양한 디자인의 네크라스부터 이어까지 만날 수 있으며 품격 있는 자이나 특별한 날에 애용하면 강렬하며 매력적인 룩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 02-2039-3854

# 독보적인 우아함

오벌형 케이스를 따라 핑크 골드 스타드를 더해 세련되면서도 강렬한 개성을 내뿜는 기르파에 베누아 일물체 워치, 로마자 인덱스와 블루금 모양의 시그니처가 매종의 클래식한 면모를 잇는다. 매뉴팩처 매뉴얼 와인딩 메카니컬 무브먼트 1917 MC 칼리바로 구동하며, 수심막 30m 방수 기능도 갖췄다. 라이트 톤 그레이 옐라게이터 가죽 스트랩으로 품격 있게 마무리했다. 가격 미정, 문의 1566-7277



# CHEERS TO YOUR LIPS

림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링 제품이자 디올 하우스의 대표 아이콘인 다올 아र्ट 립 글로우. 인기 비결은 바로 끈적임 없이 오랜 시간 유지되는 수분감이다. 여기에 매력적이고 유니크하며 은은하게 발색되어 본연의 입술 색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컬러링까지 추가되면서 더욱 사랑받고 있다. 이번 에디션은 컬러는 세 가지로 #033 코랄 핑크, #032 진저 레드, #013 베이퍼다. 더 다양한 컬러로 베스트 컬러 립밤을 즐겨보자. 다올 아र्ट 립 글로우 #032 진저 레드 3.2g 4만5천원대, 문의 080-342-9500





1 약 1.01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메인으로 세팅한 피아제 알레강스 인게이지먼트 링 3천만원대  
 피아제, 2 오픈 숄더 웨딩드레스 1천만원 모노크롬리에 by 마이드러스웨딩, 3 화이트 램 스킨 플랩 백, 23X16cm, 가격 미정 샤넬, 4 앙증맞은 디테일의 브릴리언트 참 허브스카스 백, 11, 5X9cm, 가격 미정 엘보, 5 파노 누아를 60% 이상 블렌딩해 산딸기, 체리 등 붉은 과실의 뚜렷한 캐릭터가 돋보이는 멍 크림 고르동 로제 10만원 뎀 by 페르노라가 코리아, 6 잔주 장식 헤어밴드 가격 미정 돌체 앤가바나, 7 바카라 아보어 1841 스페인 플루트 2pcs 70만원 바카라, 8 나노 펜드라피 미니 백 16.5X14cm, 가격 미정 펜디, 9 메시 소재 리본 장식 펌프스 1백40만원 지마추, 10 바버리 시그처 튜더 로즈 향수 32만원 바버리, 11 레이디 디올 라지 백, 32X25cm, 가격 미정 디올, 12 스타 레카시 문배이즈 데이 & 네이트 워치 36MM 5백58만원 몽블랑, 13 주얼 장식 클러터 펌프스 1백40만원대 미우미우.

피아제 1668-1874 마이드러스웨딩 02-549-7331 샤넬 060-200-2709, chanel.com 엘보 02-3449-5916 뎀 by 페르노라가 코리아 02-3466-5701 돌체앤가바나 080-564-7700 바카라 02-3448-3778 펜디 02-514-0652 지마추 02-3443-9469 몽블랑 1670-4810 디올 02-3480-0104 바버리 02-3452-1921 미우미우 02-3218-5320

# for her Selection

눈부신 신부를 위한 브라이덜 셀렉션. photographed by choi ming young, jeong jin young



# GRAFF

GRAFF.COM



1 CD 버클 벨트 가격 미정 **다울 맨**, 2 재킷용 폴리에스테르로 제작한 입스티치 & 로고 백 스카프 12만원 **말바리**, 3 태그홀이어 캐라 호이어 02 크로노그래프 블랙 워치 6백74만원 **태그홀이어**, 4 다크 로큰 코튼 벨벳 턱시도 재킷, 다크 로큰 코튼 벨벳 트라우저, 솔리드 포폴린 드레스 셔츠, 화이트 라틴 포켓 스케어, 벨벳 보타이 모두 가격 미정 **말프 로렌**, 5 마이스터스틱 80일간의 세계 일주 뒤에 탄생된 2백62만원 **몽블랑**, 6 LV 인스틸트 커피스 링크 가격 미정 **루이 비통**, 7 구운 마시멜로와 계피를 곁들인 사과 타르트, 시트라스, 부드러운 오크 향의 풍미를 지닌 발베니 25년 레어 메리지 1백80만원 **발베니**, 8 스크리드 레드 슈운 키 울더 55만원 **벨루티**, 9 화이트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링 2백만원대 **볼가리**, 10 블랙 토트백, 47x24.5cm, 3백54만원 **카르띠에**, 11 카르띠에 소재의 로고 장식 로퍼 80만원대 **토즈**, 12 카프 스킨 소재의 브라이드 그린 심플 카드 케이스 36만원 **에르메네제일도 제나**, 13 블루 위스키 잔 50만원대 **에르메스**.

다울 맨 02-3480-0104 **말바리** 02-2018-1439 **태그홀이어** 02-548-6021 **말프 로렌** 02-6004-0220 **몽블랑** 1670-4810 **루이 비통** 02-3432-1854 **발베니** 02-2152-1600 **벨루티** 02-547-1895 **볼가리** 02-2056-0170 **카르띠에** 1566-7277 **토즈** 02-3438-6002 **에르메네제일도 제나** 02-518-0285 **에르메스** 02-544-7722

for him  
Selection

품격 있는 예비 신랑을 위해 엄선한 웨딩 아이템.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jeong jin young

LA PRAIRIE  
SWITZERLAND



HOLD TIME IN YOUR HANDS  
손에 넣은 시간의 아름다움

90년 스위스 쉐를라 과학으로 완성된 레주베네이팅의 정점  
LA PRAIRIE는 시간을 초월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스킨케어 아이콘을 선사합니다.



라프래리 홈페이지에서 브랜드 캠페인 스토리를 더 자세히 만나보세요.



# Exploring the Surreal

영어로 'surreal'이란 표현은 대개 '믿기지 않는, 꿈 같은, 비현실적'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팬데믹이 장악한 지난 2년의 시간도 때때로, 좋지 않은 맥락에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우주여행을 낚음 정도로 과학기술이 진보한 21세기에 마스크 조각을 걸쳐야만 다닐 수 있는 상황 자체가 그야말로 'surreal'하지 않은가. 1세기 전으로 돌아가, 근대 문명의 가파른 발전을 등에 업고 가공할 무기로 대량 살상을 초래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직후 초현실주의(surrealism)가 저항적으로 등장한 이유를 절로 납득할 수 있게 해준다. 때마침 국내의에서 초현실주의를 키워드로 삼은 미술 전시가 잇따라 펼쳐지고 있다.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다시 바라보라고 주장하는 초현실주의자들의 외침은 지금처럼 상상력과 지혜가 요구되는 절박한 시기에 더 진한 울림을 자아낸다.

"나는 꿈과 현실, 이 두 상태가 걸으려는 모순되어 보이지만, 미래에는 일종의 절대적 현실, 말하자면 초현실로 용해 될 것이라 믿는다." by 앙드레 브르통(1924)

꿈을 그리고 무의식적인 내면의 자아를 표현하는 초현실주의라고 하면 흔히 살바도르 달리나 르네 마그리트 같은 몽환적인 그림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래서 미술 사조로 여겨지지만 사실 그 근간은 문학이었다. 1920년대 초 파리의 실험 문학에서 출발했고 '초현실주의'라는 단어를 만든 인물도 당시 파리 문화 예술계를 주름잡던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Guillaume Apollinaire)다. 초현실주의 예술가이자 생테 하차 테즈먼드 모리스의 설명을 빌리자면 '실'의 방식 전체를 가리키는 철학 개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마그리트와 호안



미로 같은 전혀 다른 종류의 예술가가 한 우산 아래 함께 활동하는 사례가 나온 것이다. 초현실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끔찍한 학살을 자행한 기존 체제에 대한 혐오로 합리주의와 이성적 인간성에 등을 돌린 다다이즘(1916년부터 1920년대 초까지 전 유럽을 휩쓴 운동)에서 파생했는데, 일부 다다이스트는 극단적인 부정이나나 새로운 '희망'의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악순환을 탈피할 수 있는 보다 진지한 행보를 부르짖었다. 그중 핵심 인물이 초현실주의의 창자 앙드레 브르통(André Breton)이다. 파리에서 시인으로 활동하던 그는 자신과 지지자들의 생각을 모아 일종의 선언문 형식으로 내놓기에 이른다. 1924년에 발표한 '초현실주의 선언문(Manifeste du Surréalisme)'이다. 그는 사전적 정의도 내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현실주의:

## 초현실주의의 거장들 A SURREAL SHOCK

현재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에서 진행 중인 전시 (초현실주의의 거장들: 로테르담 보이만스 판빙궁인 박물관 걸작전)에서는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선언문 책자를 비롯해 마르셀 뒤샹, 안 레이, 막스 에른스트 등 여러 예술가의 실험적 출판물을 실물로 접할 수 있다(오는 3월 6일까지). 사실 다디와 초현실주의에 관련된 각종 서적이나 팸플릿, 스키치 같은 문헌은 귀중한 사료이고 누군가에게 영감 넘치는 작품이 될 터지만, 이번에 바다를 건너온 정쟁한 미술 작품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다. 향구도시 로테르담에 자리한 보이만스 판빙궁인 뮤지엄은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미술관으로 내실 있는 초현실주의 컬렉션으로도 유명하고 일찍이 마그리트와 달리 회고전을 여는 등 센세이션을 일으킨 만한 기획전에도 공을 들였다. 이번 기획전에 이 미술관의 소장품 중 전 시명처럼 '초현실주의 거장들'의 대표작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마그리트, 달리, 미로, 안 레이처럼 미술 애호가 가 아닌 대중도 잘 알 만한 이름뿐 아

1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에서 오는 3월 6일까지 열리는 <초현실주의의 거장들: 로테르담 보이만스 판빙궁인 박물관 걸작전(A Surreal Shock: Masterpieces from Museum Boijmans Van Beuningen)>의 6부 기묘한 '낚음' 풍경, 르네 마그리트, 안 레이, 호안 미로의 작품들과 더불어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에게 언급된 1949년 중반의 소설 <알도르의 노래도 소개하고 있다. 2 안 레이, 복원된 비너스(1936/1971), 사랑과 욕망을 중시했던 초현실주의자들은 이상하게 예측되거나 변형된 신체 표현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했다. 3 뮌헨이 신발로 변하는 모습 또는 두 가지 상체를 합친 듯한 마그리트의 작품 붉은 모뎀(1937) 등 보이만스 판빙궁인 뮤지엄의 소장품이 보인다. 4 살바도르 달리, 비너스의 여인(후각적 미러(1967/1970)). 전통적인 미에 대한 생각을 뒤집는 식고 흉상 작품이다. 뒤쪽으로는 영국 출신의 예술가 에들린 이거의 회화 작품 양이 있는 사람(1956)이 보인다. 1~4 Photo by SY Ko



명사, 순수한 상태의 정신적 자동기술법(오토마티즘). 이성 이 가하는 그 어떤 통제도 없이, 그 어떤 미학적이거나 도덕적인 고려도 없이, (말이나 글이나 다른 어떤 방식이든 간에) 사고의 실제 기능을 표현하는 것. 의학을 공부하기도 했던 브르통은 당시 <꿈의 해석>을 출간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알고 있었고, 꿈과 환각 등 무의식 세계가 새로운 종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또 다른 형태의 현실이라고 여겼다. 그리하여 브르통과 그 친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기술법을 실험했는데, 무의식에 접근하는 도구로 강령회, 집단 최면, 환각제도 동원했다. 이렇듯 문예운동으로 시작됐지만 미려하거나 인상적인 화풍에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리는 요소를 갖춘 시각 예술이 주축이 될 만큼 초현실주의는 빼어난 미술가들을 여럿 배출했다. 글 코영연

나라 폴 델보, 막스 에른스트, 이브 탕기 등 다양한 초현실주의 계보의 작가들이 소개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또 수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에일린 이거, 레오노라 캐링턴, 우니카 웨인 같은 여성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감상할 기회이기도 하다. '행동이 자라는 과수원에 있습니다(1947)라는 작품 한 점을 선보인 레오노라 캐링턴은 영국 부유층 출신으로 막스 에른스트와 사귀면서 고국의 사고계를 탈출해 초현실주의 그룹에 합류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멕시코로 거주지를 옮겨 그곳에서 평생 그림과 글을 창작하며 장수했다. 그녀가 글과 삽화를 맡은 동화책 <꿈의 우유(The Milk of Dreams)>라는 제목은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의 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오는 2월 말부터 영국 테이트 모던에서도 대규모 초현실주의 전시가 열릴 예정인데, 1920년대 파리의 아트 신에 집중하는 데서 벗어나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초현실주의의 발자취를 글로벌 차원에서 폭넓게 조명할 예정이다.

## SALVADOR DALI 살바도르 달리

예술의전당 (초현실주의 거장들)전에는 스페인이 낳은 자타 공인 최대 화가 살바도르 달리(1904~1989)의 주요 작품, 이른바 '사람이 있는 밀로의 비너스(1936)리드지 마리에 구름이 가득한 커피(1936) 등이 눈길을 잡아끄는데, 그의 독보적인 캐릭터에 흥미를 느꼈다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고 있는 달리 회고전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다(반대로 워낙 유명세 있는 달리를 계기로 다른 초현실주의 계열의 전시나 콘텐츠에 관심을 기울이게 될 수도 있겠다). 오는 3월 20일까지 펼쳐지는 <살바도르 달리: Imagination and Reality>전은 달리의 고향이거 한 스페인 피케레스의 달리 미술관, 미국 플로리다에 위치한 살바도르 달리 미술관, 그리고 스페인 마드리드의 레이나 소피아 국립미술관에서 소장품을 모으아인선한 기획전으로 국내에서 개최된 달리 회고전으로는 최대 규모다. 양쪽 수명 피리가 올라간 연출적인 인물 시면에 서 볼 수 있듯 달리는 타인의 시선을 즐기고 갈구하는 예술가였다. 어린 시절 형의 죽음으로 정신적인 상처를 입은 그는 강박과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가상

천외한 행동을 일삼는 괴짜면서 거의 평생에 걸쳐 천재적인 화가로도 인정과 주목을 받은 '슈퍼스타' 작이었다. 초현실주의 그룹에 속했지만 나중에 독자적인 길을 개척한 것도 그의 성향을 볼 때 당연한 행보로 여겨진다. 이번 DDP 회고전에서는 회화뿐 아니라 영화, 사진, 연극, 패션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그의 왕성한 활동을 두루 볼 수 있을 만큼 다양한 매체의 작품을 접할 수 있다(총 1백 40여 점). 파나스에 뒤지지 않은 동시대 최고의 작가로 스스로를 평가하는 '자백' 성향이나 피터로 점철된 화려한 삶을 살았던, 그래서 앙드레 브르통이 그의 이름 철자를 바꿔 '뒤에 환상했다'는 뜻에서 '아비다 달라(Avida Dollars)'라고 비꼬아 부를 정도의 탐욕도 그렇고, 그의 뮤즈이자 파트너였던 여인(갈리아)에 대한 집착적인 사랑도 그렇고 달리는 여러모로 참 흥미로운 캐릭터다. 이번 전시에는 상대적으로 초라했던 그의 말년과 사랑의 귀결에 대해서는 별로 드러나지 않지만, 기성전결이 있는 그의 생애저 연극적이라 재미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감탄할 만큼 출중한 실력이 뒷받침된 덕분일 테지만.

1 살바도르 달리가 핵과 연연된 시점에서 영감받아 작업한 '네로의 코 주위의 탈물질화(Dematerialization Near the Nose of Nero)'(1947) 2 고전주의 미술 거장들에서 영감을 받은 달리의 후기 작품 '죽은 로스 엠보자도스', 미켈란젤로의 로렌초 데 메디치의 무덤에 있는 로렌초 데 메디치 조각상 재해석(The Warrior or 'Los Embozados', Lorenzo de' Medici after the Tomb of Lorenzo de' Medici by Michelangelo)c. 1982) 1, 2번 이미지 © Salvador Dalí, Fundació Gala-Salvador Dalí, SACK, 2021 3 자신의 아내이자 뮤즈였던 갈리아와 함께 있는 달리. 예술가들의 창작촌을 주력하며 있던 갈리아는 프랑스 시인 올 엘리아르의 애인이고 1934년 열 살 연하인 달리와 결혼한다. Photo by SY Ko 4 갈리아 뒷모습이 보이는 '슈가빙크로스' 작품이 놓인 색선 2 전시실 풍경. (살바도르 달리전은 DDP에서 오는 3월 20일까지 열린다. 1, 2, 4번 이미지 제공, 자판미디어 <살바도르 달리>전



## 사람 특별전 CHAGALL AND THE BIBLE

미르크 샤갈(1887~1985)은 앙드레 브르통이나 안 레이처럼 초현실주의 진영에서 활약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세를 보낸 인물이 아니다. 작가 스스로도 특정 사조로 분류되는 걸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꿈꾸는 듯한 세계를 표현하는 신비하고 환상적인 시각언어 덕분에 초현실주의적인 화가로 여겨지기도 한다. 현재 서울 삼성동 마이아트뮤지엄에서 진행 중인 <샤갈 특별전은 동유럽 유대인 출신의 '경계인'으로서 작가의 면모를 다룬 전시라는 점에서 시선을 모은다. 물론 'Chagall and the Bible'이라는 부제만 보고 성서를 소재로 한 종교 전시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샤갈이라는 예술가의 삶과 작업에서 성서적 모티브와 신앙은 중추적이며, 단순히 종교화로 정의를 할 수 없다. 그가 노년기에 여성을 보낸 남프랑스에 있는 국립 샤갈 미술관을 좋은 예로 꼽을 수 있는데, 이 미술관은 '성서 미술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구약성서 연작으로 채워져 있다. 러시아의 작은 마을 비테츠크의 유대인 게토에서 태어나고 자란 샤갈에게 '신앙'은 아주 중요한 삶과 예술의 원천이었다. 당시 동유럽 유대인들은 도박적이고 금욕적인 가부장제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 두 발을 단단히 붙인 채 현실의 기쁨을 누리는 일상의 신성화를 추구하는 하시디즘의 영향을 받았는데, 샤갈도 그랬다. 사인이기도 했던 샤갈은 성서야말로 가장 위대한 시의 원천이라고 생각했고, 구약에 담긴 많은 스토리에서 '인류애'를 고집해냈다. 러시아혁명, 1, 2차 세계대전을 겪었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첫 부인을 잃고도 예술에 매진할 수 있었던 건 '열광적으로 태오르는 희망'이라는 하시디즘의 장수가 그의 가치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4m에 이르는 대형 테이프스트리 작품을 비롯해 2백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4월 10일까지.

1 모세를 담았던 샤갈의 다색 색면화 작품, 모세(Moïse)(1966), S.29, Color lithograph, 63 x 42cm, © Marc Chagall / ADAGP, Paris - SACK, Seoul, 2021 2 루돌프 강턴 파리를 향한 시선(1960), M. 351, Color lithograph, 39 x 60cm, © Marc Chagall / ADAGP, Paris - SACK, Seoul, 2021 3 마이아트뮤지엄에서 오는 4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샤갈 특별전은 동유럽 유대인 출신으로 아랍 문화에 애착을 기울인 샤갈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 동유럽 유대인 문화에 초점을 맞춘 기획전이다. 샤갈에서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다윗과 밧세바의 스토리를 담은 대형 테이프스트리 작품이 보인다. Photo by SY Ko 1, 2번 이미지 제공, 마이아트뮤지엄





팬데믹의 장기화 속에서도 일상의 시간은 흘러가고, 저마다의 여정은 계속된다. 특히 아트 생태계를 둘러싼 전시 콘텐츠의 행보는 그 어느 때보다 바빠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허황된 명성이나 성공에 천착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묵묵하게 걸은 컬러 사진의 선구자 사울 레이더 회고전, 20세기 초·중반 작품을 토대로 한국 사진사를 훑어볼 수 있는 기획전 등 서울에서 진행 중인 2개의 사진전, 그리고 부산 을숙도와 망미동에서 각각 항구도시의 아트 신을 물들이고 있는 절이 다른 2개의 전시를 소개한다.

#piknic, 〈사울 레이더: 창문을 통해 어렴풋이〉

"세상에서 잊히길 바란다"고 담담하게 말하는 소탈하고 꾸준한 인상의 할아버지. 지난해 말 국내 개봉한 다큐멘터리 〈사울 레이더: 인노 그레이트 허리〉(2013)에서 자신의 오랜 작업실이 있는 뉴욕 이스트 빌리지에 배경으로 등장한 노년의 사울 레이더는 "도대체 왜 (보잘것없는) 나를 찍고 싶어 하느냐?"는 의아한 태도를 보이지만 느릿느릿 다정한 말투로 삶을 회고한다. 그는 다큐가 발표된 2013년 초 겨울 세상을 떠났다. 성취주의가 만연한 세상인데 정말로 잊히길 바랐을까, 삼기도 하지만 적어도 그가 아주 평범한 이들의 일상에서 반짝거리는 많은 순간을 사랑했다는 건 쉽게 알 수 있다. 특별한 주제 의식이나 메시지를 담기보다는 도시 풍경을 관조하며 틀에 얽매이지 않은 시각으로 세상을 담아낸, 차분하고 따뜻한 서정성이 절로 묻어내는 그의 컬러 사진을 보노라면 그 진심이 느껴진다. 서울 남산 인근의 문화 명소 피크닉에서 진행 중인 사울 레이더: 창문을 통해 어렴풋이전은 풍요로운 시기이던 1950년대 뉴욕의 도시 풍경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색감과 사진이 아닌 그의 다채로운 사진 작품을 비롯해 미공개 슬라이드 필름, 그림, 패션 화보 등을 두루 접할 수 있다. 강력한 반점을 거느린 영화 〈개불〉의 토드 헤인즈 감독이 오마주한 작가로도 유명하지만 그런 수사가 필요 없이 그저 작품만으로도 매력적이다.

전시명 사울 레이더: 창문을 통해 어렴풋이  
전시 기간 3월 27일까지 홈페이지 piknic.kr



#부산현대미술관, 〈그 후, 그 뒤〉, 〈경이로운 전환〉 등

빠른 속도로 달리는 열차의 창가에 세워진 유화화 동전 하나, 고속 열차의 국경을 가로지르며 내달려다 우태를 기는 커닝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균형 감각을 뽐낸다. 언뜻 광고인 양 동전의 인장성을 포착한 이 영상은 사실 물성주의가 팽배한 자본주의 체제 속 마치 국가가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화폐에 대한 환상을 꼬집고 있다. 싱가포르 작가 호루인의 중국 고속 열차의 공극적인 동전 실험(2018)이라는 작품으로 부산현대미술관 기획전 〈경이로운 전환〉 전시장에 들어가면 바로 눈에 띈다. 기하학적 형태와 그림자의 앙상블이 아름다운 일러스트 스페이스(2021)는 어업용 통발에서 착안했는데, 실제 없이 부유하는 자본주의적 부의 현상을 비판적으로 보여주는 강인기 작가의 설치 작품이다. 전시장 한복판에는 객차무늬 평상 위를 수놓은 다수의 책으로 이뤄진 설치 작품도 눈길을 끄는데, 60대 비정규직 노동자 루치아에 씨를 고통해 그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일대기를 책으로 펴낸 대만 작가 자우위잉의 작업의 이력-루치아에(2012). 작가는 은퇴를 앞둔 친척과 이웃들이 반세기 가까이 일하고도 여전히 경제적 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이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부산현대미술관은 동시대 미술을 다루는 기관답게 자본주의, 노동, 환경 등 오늘날 우리가 대면한 사회적 담론을 담은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경이로운 전환〉 말고도 기후변화 시대의 생태계 문제를 다룬 〈그 후, 그 뒤〉 등 4개 전시를 이틀 볼까지 개최한다.

전시명 〈그 후, 그 뒤〉, 〈경이로운 전환〉 등  
전시 기간 각각 3월 1일, 3월 20일까지  
홈페이지 www.busan.go.kr/moca



#인주라운드, 〈사(寫)에서 진(眞)으로〉  
'배간다는 뜻의 사(寫)와 '참된 모습'이라는 진(眞)의 결합이인 사진. 현대미술을 둘러싼 담론의 중심에 있는 사진이라는 매체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자리매김해왔을까? 서울 논현동의 문화 예술 공간 인주라운드에서 열리고 있는 〈사(寫)에서 진(眞)으로〉는 규모가 작지만 진중한 의제를 품은 기획전이다. 한국 사진의 아카데믹스트리미(국제적으로 활약해온 박주석 교수(명지대)의 〈한국사진사(서)문학동네, 2021년〉의 출간을 기념하는 동시에 한국 사진사를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 사진학의 개척자 신복균, 한국인 최초로 개인 사진전을 연 정해방을 비롯해 현일영, 임응식, 김한웅, 민중식 등 작가 22인의 반트지 프린트, 오리지널 프린트 총 50점이 국내에서 처음 공개됐다. 박주석 교수는 "사진은 이미 포스트그라피(寫)를 풀고 있는 단이다. 그러면 남는 것은 진(眞)의 문제"라며 "오늘날의 '진'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사진이 타 매체에 비해 압도적인 압력으로 다뤄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분명 이 생태계에 기회이기도 하고 압박이기도 한데, 이는 한국 사진이 잠자긴 무개와 나 이갈 길에 대한 질문에 다름 아니다. 20세기 한국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인주라운드와 공동 기획으로 참여한 갤러리 해움, 대구의 사진 전문 공간 아트스페이스 루오스에서 순회전 형식으로 계속될 예정이다.

전시명 〈사(寫)에서 진(眞)으로〉박주석 〈한국사진사〉출간 기념전  
전시 기간 2월 26일까지 문의 070-786-8257



#국제갤러리 부산, 문성식 개인전  
3년 만에 국제갤러리에서 다시 개인전을 열고 있는 문성식 작가의 전시명은 〈Life 삶〉이다. 제목처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풍경에 대한 소소한 기록을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은은한 색감이나 두껍게 바른 물감의 질감이 박수근의 '고목' 시리즈를 연상시키는 '겨울나무'(2021)를 비롯해 사계절을 이루는 꽃과 나무 등 일상 풍경에서 마주치는 장면과 모습을 담은 유화 드로잉 1백여 점이 전시장을 채우고 있다. 이 같은 일상의 조각을 담아낸 대다수 작품에는 그가 대학 시절부터 적극 활용해온 연필이 주재료로 쓰였다. 두껍게 바른 유화 위에 연필로 그려 비활성을 부여하는 유화 드로잉 방식이다. 여기서 물감이 쉽게 섞이지 않는 연필과 유화의 마찰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연필과 유화 사이의 저항을 이겨내고 마치 캔버스 위에 부조와 같은 형태로 그리려고 하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유화 드로잉에서는 번짐이나 뭉그러짐 등 연필만 사용할 경우에 나오는 우연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화면의 모든 부분에 연필이 세세히 닿아만 비로소 하나의 작품으로 태어난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문성식의 작품에는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에 대한 애정이 깃든 따스한 시선이 느껴진다. 우주 만물의 신비와 원리에 대한 진지하고 폭넓은 눈길, 그러면서도 다정하고 섬세한 손길을 머금고 있다. 글 고정연  
전시명 〈Life 삶〉 전시 기간 2월 28일까지 홈페이지 www.kukjegallery.com

# Flowers Forever

변함없이 반짝이는 꽃의 유혹,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유부터 차례대로 **클라리 피오레 브레 이슬리 라지** 브랜드 헤리티지 속 플러워 모티프에서 영감을 딴 4개의 꽃잎으로 장식한 핑크, 화이트 골드 소재 라운드 다이아몬드 0.37캐럿 파베 다이아몬드 3.06캐럿을 세팅했다. 손목을 휘감는 디자인으로 여성스러움과 화려함을 동시에 부여한다. 5천4백만원대. 문의 02-2056-0171

**타피타 핀토리아 바인 링** 밤하늘을 수놓은 영롱하게 빛나는 별에서 모티브를 얻어 탄생한 빅토리아 컬렉션의 링이다. 화이트 골드 소재의 리프 디자인에 마키조 컷파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반짝임을 극대화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6250-8620

**파피에 로즈 브로치** 비범의 장면에 파어난 한송이 장미를 연상시키는 18K 화이트 골드 프레임에 1백43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약 1.20캐럿으로 우아함을 더한 브로치 2천1백90만원. 문의 1668-1874

**반클리프 아펠 로타스 비트윈 핑거 링** 불드한 클라리 모티브의 화이트 골드 소재 다이아몬드 세팅 링으로 프래임을 여는 것이 가능한 투사이드 링으로도 착용 가능하다. 4천4백만원대. 문의 1668-1906

**다이아니 타일리스 클라리 네크리스** 구조적으로 케팅한 파이어 컷 다이아몬드 4중 앙의 스파이어를 견고하게 받치고, 푸른 컬러와 빛깔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네크리스 줄까지 다이아몬드로 장식해 극한의 우아함과 화려함을 완성했다. 8천3백만원대. 문의 02-515-1924

**쇼에 LAURIER 브라이덜릿** 18K 화이트 골드로 세밀하게 디자인한 핑클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으로 화려함과 우아함을 부각한 브라이덜릿 5천만원대. 문의 02-2039-3854

**까르띠에 플뤼 드 까르띠에 네크리스** 뿔어지는 빛의 영롱한 빛을 묘사한 네크리스로 페어 컷과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등 각기 다른 모양의 다이아몬드가 조화를 이뤄 직사각형 눈부신 광채를 뽐낸다. 1천3백40만원. 문의 1566-7277

**스티븐 웹스터 리브 미, 리브 미 닷 크리스탈 헤이즈 라지 링** 화이트 골드에 헤리티지와 크리스탈 헤이즈 25.37캐럿으로 화려하고 불드한 클라리 형태를 완성한 링으로 다이아몬드 0.37캐럿을 파베 세팅해 우아함을 배웠다. 1천4백50만원. 문의 02-2231-1592 에디터 고정연



**(위부터) 바쉐론 콘스탄틴 트래디셔널 매뉴얼 와인딩 부릭 에디션** 베젤과 인덱스에 장식한 다이아몬드 세팅으로 화려한 분위기를 자아내지만 매종 특유의 깔끔하고 절제된 멋으로 미학적 완성도를 높였다. 제네바 홈 미터를 획득한 수동 기계식 칼리버 4400 AS를 장착했고, 6시 방향에는 실용적인 스몰 세컨즈를 올렸다. 4천700만원, 문의 1670-4606

**로저드워 엑스칼리버 42** 총 6.777캐럿에 달하는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다이얼, 베젤, 링크 전체에 장식해 과감한 세련미를 보여준다. 47.1에 불과한 블랙 인덱스가 모던하고 경쾌한 개성을 더해준다. 전세계 1백83개 한정 출시한 모놀로 마이크로 로터와 스몰 세컨즈가 컴플리케이션을 이루는 오토매틱 칼리버 FC620으로 구동한다. 1억9천8백50만원, 문의 02-3479-1403

**에거 로블트르 마스터 울트라 빈 퍼워 리저브** 차분한 감성의 에그셀 배지 다이얼에 퍼워 리저브와 날개 모양을 올리고, 골드 마크 인덱스로 마감했다. 지름 38mm 라운드형 핑크 골드 케이스와 다이아몬드 장식 베젤이 특유의 클래식한 분위기를 이끈다. 43개의 퍼워 리저브 기능과 50m 방수 성능을 갖춘 칼리버 8381로 구동한다. 3천4백만원, 문의 1670-1833

**오메가 드 빌 트레저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스몰 세컨즈 40MM** 동형 다이얼과 베젤에 세팅한 72개 홀 컷 다이아몬드 등 섬세한 외관과 대조되는 강직한 정확성이 특징으로 크로노미터, 항자성을 인정한 오메가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826을 장착했다. 감각적인 그레이 컬러 스트랩을 매치해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1천5백30만원, 문의 02-6905-3301

**피아제 알티미라노 워치** 자체 제작 초박형 기계식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1200c를 탑재했으며, 앞과 투명한 인덱스와 가늘고 긴 핸즈, 배터링 아워 마커가 매종만의 뚜렷한 디자인 코드를 그려낸다. 지름 41mm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는 72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두르고, 다이얼에는 총 2,547캐럿에 달하는 6백30개 다이아몬드를 정교하게 세팅했다. 8천4백50만원, 문의 1668-1874

**블랑팡 블루마에 칼리버 2000** 정교한 기계식 메커니즘을 섬세한 감성으로 담아낸 피스, 42.2의 퍼워 리저브를 지원하는 셀프 와인딩 67630시 동력을 얻으며, 12시 방향에 요일과 월 인디케이터를 올리고, 6시 방향에 인상스러운 표정을 한 문레이즈를 더해 컴플리케이션을 채웠다. 날짜를 표시하는 구불구불한 세트먼트 핸즈와 섬세한 세이지 일 모양의 이워 마커, 그리고 인덱스와 베젤에 장식한 다이아몬드가 어우러져 유쾌한 인상미를 이룬다. 2천1백33만원, 문의 02-3479-1833 **에디션 | 아퓨이**

**두블론 세 카프린코스 90만원대 카르띠에**  
문의 1566-7277

# Diamond King

젠블맨을 위한 우아한 반짝임, 남성 다이아 워치 6,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이노베이션



**(위부터) 카르띠에 LOVE 브라이덜링** 관습에서 벗어난 사랑을 의미하는 카르띠에의 대표 브라이덜링, 스크루 드와 아버로 여는 방식 자체에도 고귀한 사랑의 약속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18K 옐로 골드 제품 8백65만원, 문의 1566-7277

**부쉐론 퀴르 레디언트 다이아몬드 라지 링** 프랑스로부터 4개의 의미와 동시에 강한 결속을 상징하는 퀴르로 링,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사랑의 증표로 부쉐론만의 상징성을 반영했다. 건축물을 닮은 구조적 디자인의 18K 로즈 골드 보드에 0.5캐럿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링 1천만원, 문의 02-6905-3322

**쇼메 주드 라양 팬던트** 크로스 형태로 표현된 메틀이 사랑에 대한 결속을 의미하는 팬던트, 로즈 골드 소재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풀 파베 세팅해 작지만 화려함을 부여한다. 4백만원, 문의 02-2039-3854

**피아제 포제션 링** 피아제 매종의 아이코닉한 디자인으로 링 중앙에 화려한 모노그램을 담아 영원한 사랑, 행복, 행복을 상징한다. 18K 핑크 골드에 2백34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약 2.17캐럿을 세팅해 우아함을 더했다. 2천4백만원, 문의 1668-1874

**블기네 로마 아모르 로마(Roma)**의 철학을 뒤집으면 완성되는 아모르(Amor)란 단어의 뜻은 사랑이다. 아첨할 줄 모르는 자에게 영원한 사랑의 의미를 담아낸 제품으로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4 프랭으로 세팅한 슬라테어 디자인 링 가격 미정, 문의 02-2056-0171

**쇼피드 해피 하트 팬던트** 쇼피드의 상징이자 사랑을 의미하는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빅 하트와 그 우아한 스타를 하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이코닉한 무빙 다이아몬드가 조화를 이루는 해피 하트 컬렉션의 팬던트 1천1백82만원, 문의 02-6905-3390

**반달리프 아펠 베를리 시그니처 링** 행운과 사랑을 상징하는 골드 비즈를 상하하게 엮어 하나의 링으로 완성한 베를리 컬렉션의 시그니처 링, 18K 옐로 골드에 캘리그래피로 새긴 반달리프 아펠 사랑 이니셜이 새겨져 있다. 3백만원, 문의 1668-1906

**타파니 페달 키 팬던트**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를 상징하는 키 모양 팬던트로 타파니 아가브에 보관되어 있는 1880년대 빈티지 열쇠를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이 돋보인다. 가격 미정, 문의 02-6250-8620 **에디션 | 상징인**

# Be My Sweethe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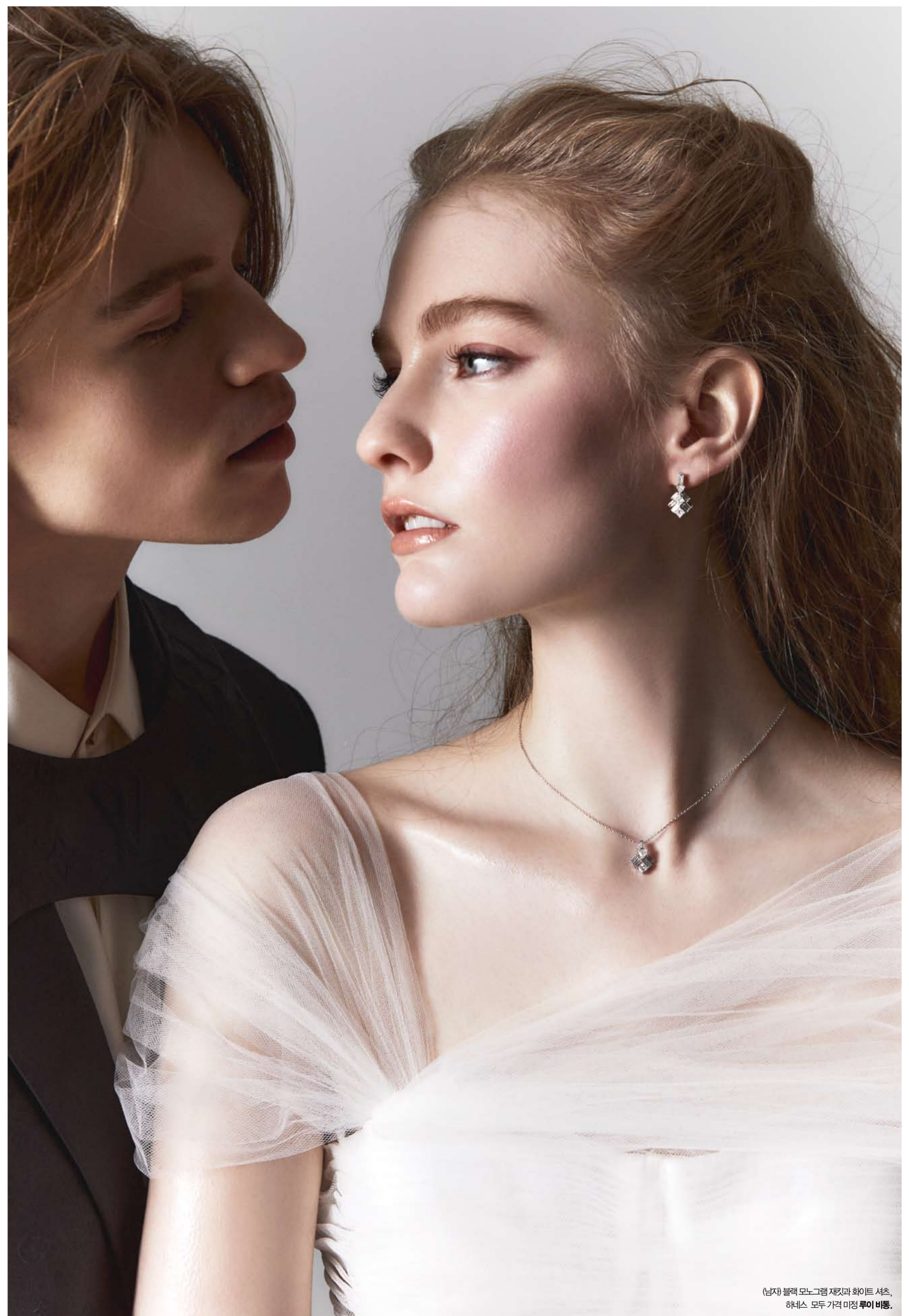
달콤쌉시름한 초콜릿 같은 사랑의 속삭임을 담은 주얼리,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러플 디테일로 풍성하게 연출 가능한 화이트 드레스  
 가격 미정 **오스카 드라펜타 by 소유 브라이덜**, 화이트 오픈  
 토 슈즈 가격 미정 **세르지오 로시**, 18K 화이트 골드에 0.22캐럿  
 트로이아아 컷 다이아몬드 1개와 프린세스 컷 다이아몬드 2개,  
 총 1.55캐럿의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 7개로 이루어진 리플렉션  
 드 카르띠에 컬렉션의 이어링 2천2백80만원, 0.22캐럿  
 트로이아아 컷 다이아몬드 1개와 프린세스 컷 다이아몬드 1개,  
 총 0.36캐럿의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 5개로 이루어진 리플렉션  
 드 카르띠에 네크라스 1천5백만원, 18K 화이트 골드에  
 트로이아아 컷 다이아몬드 1개, 프린세스 컷 다이아몬드 1개,  
 총 0.88캐럿의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 6개로 이루어진 리플렉션  
 드 카르띠에 링 1천5백70만원 모두 **카르띠에**.



# our own melody

함께할 때 더욱 빛을 발하는,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지금 이 순간.  
 photographed by **lee sang hun**



(남자) 블랙 모노그램 재킷과 화이트 셔츠,  
 하네스 모두 가격 미정 **루이 비통**.



(왼쪽부터) 플러피탑 비즈로 세밀하게 장식한 에스텔 워딩 밴드 3백만원대 **반젤리프 아케**, 칼링 모티브의 18K 화이트 골드 1백20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 1.77캐럿을 파베 세팅한 코코 크라쉬 화이트 골드 스몰 링 가격 미정 **샤넬 하이 주얼리**, 18K 핑크 골드 에 화이트 다이아몬드 14개를 세미 파베 세팅한 포스텐 듀오 링 5백만원 **프렌드**, 장미의 기쁨을 표현한 핑크 골드 소재 밴드에 군데군데 다이아몬드 장식을 더한 브로드 로즈 링 가격 미정 **다올 파인 주얼리**, 심플한 디자인의 워딩 밴드로 다이아몬드가 훌륭히 박혀 우아함을 더하는 벨 에포크 핑크 골드 링 다이아 1백97만원 **다이아나**, 18K 화이트 골드 밴드 사이에 37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0.56캐럿을 세팅하고 화진 밴드를 더한 포제션 워딩 링 7백50만원 **피아제**.



(남자) 스카이 블루 칼라의 니트 소재를, 화이트 칼라 맨조 모두 가격 미정 **보태가 베네타**, H 모양의 지름 26mm 스틸 케이스에 태두리를 1백12개의 총 0.45캐럿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쿼츠 무브먼트로 작동하는 아워 H 워치 가격 미정 **에르메스**, (여자) 독특한 프린팅의 코트, 화이트 칼라 보디수트 모두 가격 미정 **보태가 베네타**, 핑크 골드 소재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하프 파베 세팅한 비마이러브 0.1캐럿 9백73만원, 허니콤 모티브를 재해석한 디자인의 로즈 골드 소재로 길게 늘어뜨려 연출 가능한 구조적인 느낌의 비마이러브 네크리스 2천4백90만원 모두 **소메**, 옐로와 화이트 골드, 다이아몬드를 사용해 진귀한 페르시아 카펫의 기하학적 모티브를 표현한 디자인의 롬비 이터널레 링 9백만원대 **부셀라디**.



(남자) 블랙 컬러 코트, 블랙 셔츠, 대님 팬츠와 앵클부츠 모두 가격 미정  
**생 로랑 by 안토니 바카렐로**, 직경 44.2mm의 18K 레드 골드 케이스에 문패이즈, 날피와 파워 리저브, 월과 요일, 스물 세칸즈를 표시하는 4개의 사브 다이얼을 매치한 포르투가저 파베주얼 캘린더 5천1백만원 **IWC**.  
 (여자) 블랙 뷔스타에 드레스 1백73만원, 스카트 2백71만원, 언더웨어 61만원, 바지 컬러 핼프스 1백14만원 모두 **구찌**, 18K 화이트 골드 소재에 미모사를 상징하는 불규칙적인 다이아몬드 0.35카럿으로 장식한 미모사 화이트 골드 이어링 다이아 3백만원대, 총 1카럿 다이아몬드를 불규칙적으로 세팅한 화이트 골드 소재 미모사 화이트 골드 네크리스 다이아 5백57만원, 오픈 형태의 브레이슬릿으로 양쪽 끝에 총 2.02카럿 다이아몬드를 우아하게 세팅한 미모사 화이트 골드 브레이슬릿 다이아 1천1백59만원 모두 **다이애나**.

틸 리스트 블라우스 7백43만원 **폴 포드**, 지퍼 디테일 폴리파우 미니드레스 2백76만원 **알렉산더 맥퀸**.  
 총 21.49카럿 다이아몬드가 섬세하게 연결되어 물이 흐르는 듯 유려한 곡선 실루엣을 완성하는 레가시 네크리스 5천만원대 **아디르**, 날개 모양의 화이트 골드 소재 밴드에 다이아몬드 0.95카럿을 섬세하게 세팅한 메그나피센트 파베 밴드 링 1천7백만원대, 섬세하게 엮은 화이트 골드 소재 밴드에 11.11카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레아디 스타디스트 브레이슬릿 1억2천39만원대 모두 **스티븐 웹스터**.





(위부터) 파도의 움직임을 반영한 독특한 마더오브펄 소재의 다이얼에 50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젤을 더해 화려함이 돋보이는 마린 달무 9518 워치 4천3백만원대 **브라베**. 지름 35mm 케이스에 은은한 마더오브펄 다이얼, 1.75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인덱스와 베젤 등 세련된 디자인의 여성용 컴플리케이션 워치 레이디버드 컴플리트 칼린더 3천4백만원대 **블랑망**.



(위부터) 지름 40mm에 두께 7.2mm로 드래시한 차림에도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며, 정교한 디테일의 다이얼 디자인과 케이스로 세련미를 더하는 L.U.C XPS 1860 워치 1천4백4만원 **소피드**. 블랙과 실버의 모노톤이지만 독특한 디자인의 토노링 케이스로 세련미와 우아함을 선사한다. 샌드 블라스트 기법으로 마감한 다이얼을 화이트 골드 이워 미카와 12·6시 방향의 로마숫자 인덱스로 장식해 클래식한 무드를 풍기며, 재규어 홀 마크를 획득해 기술적으로도 손색없는 무브먼트를 장착한 말테 매뉴얼 와인딩 3천4백만원대 **바세린 콘스탄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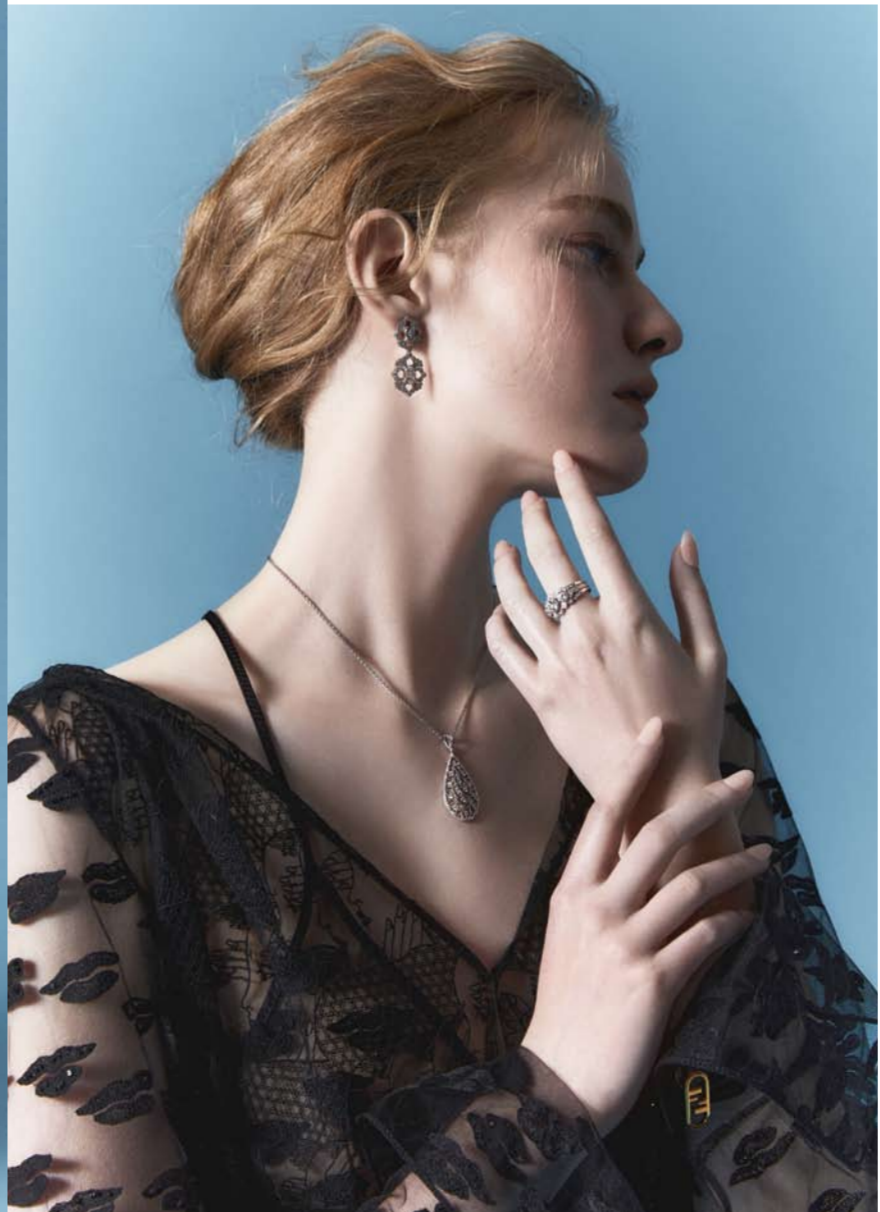
올리브 컬러 벨벳 핀스트라이프 재킷 4백70만원, 폴카 도트 셔츠 1백40만원 모두 **폴 포드**. 지름 40mm 스틸 케이스에 72개의 풀 컷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베젤을 장식해 모던하면서도 우아한 남성의 매력을 더한 드 빌 트레저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스톤 세컨즈 1천4백30만원대 **오메가**.



사스루 디테일의  
블랙 드레스와 언더웨어  
모두 가격 미정 **벤디**.  
블랙 펌프스 1백40만원 **지미슈**.



(위부터) 18K 화이트 골드 소재에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47개의 꽃잎 가운데 0.29카럿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매치한 코스모스 미디엄 모일 링  
3천1백만원대 **반블리프 아펠**, 화이트 골드에 다양한 컷팅의  
다이아몬드 총 0.82카럿을 구조적으로 세팅한 벨 에포크  
화이트 골드 링 다이아 1천49만원 **다이아니**, 1백26개의  
브릴리언트 컷 화이트 다이아몬드와 플레티넘 소재로  
이뤄진 포스텐 웨딩 링 5백55만원, 74개의 브릴리언트  
컷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플레티넘에 0.77카럿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가운데 세팅한 포스텐 인게이지먼트  
링 1천4백10만원대 모두 **프라이드**, 행복과 즐거움을  
상징한 4개의 꽃잎을 자닌 꽃 모티브에 라운드 다이아몬드  
0.37카럿과 파베 다이아몬드 0.34카럿을 세팅한 피오레버  
링 1천2백만원대 **블가리**,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플레티넘 밴드에 0.57카럿 다이아몬드를 매치한  
슬리더링 1천2백82만원 **쇼피드**.



섬세하게 표현한 플라워 모양의 화이트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로 화려함을 더한 오페라 폴 파베 이어링  
2천8백만원대, 섬세하고 정교한 골드 세공 기술로  
나뭇잎 모양을 디테일하게 표현한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 소재의 라미지 펜던트 1천2백만원대,  
르네상스 시대의 미스트피스에서 영감을 받아  
대칭과 반복적인 시각 효과를 모티브로 한 오페라  
폴 파베 이터널레 링 2천만원대 모두 **부엘라티**.



(왼쪽부터) 18K 옐로 골드에 라운드 컷 멜레 다이아몬드 다테인을 다한 클래식 옐로 다이아몬드 브레이슬릿 4백만원대 **아디르**, 노트 다테일이 돋보이는 18K 로즈 골드 소재에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세팅으로 우아함을 다한 노트 더블 로우 다이아몬드 한지드 밴글 가격 미정 **타파니**, 매혹의 상징인 뱀을 연상시키는 18K 로즈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섬세하게 파베 세팅한 세르펜티 바이 퍼피 2-코일 브레이슬릿 6천만원대, 로즈 골드 소재에 불가리 불가리 더블 로고를 오픈워크 디자인으로 세공한 비제로원 브레이슬릿 5백만원대 모두 **불가리**.



(왼쪽부터) 가운데 자리 잡은 라운드 컷 아쿠아마린이 두 줄로 비드 세팅한 컬러리스 다이아몬드와 아우라져 빛을 발하는 아쿠아마린 솔리스트 링 가격 미정 **타파니**, 화이트 골드 링에 5개의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조세핀 룬드 이그레드 링 5백55만원 **쇼메**, 마카즈 컷 다이아몬드로 반짝임과 화려함을 극대화한 펜시 아티스티 링 1천2백만원대 **아디르**, 2백50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약 4.93캐럿을 높이 올려라진 듯 세팅한 화이트 골드 소재의 산라이트 링 3천5백00만원 **피아제**, 까르띠에 리브 컬렉션의 상징인 스크루 다테일이 들어간 디자인의 18K 화이트 골드 밴드에 0.22캐럿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3개 세팅한 리브 링 5백15만원 **까르띠에**.

- 까르띠에 1566-7277
- 오스카드 라렌타 by 소유 브라이덜 02-541-7077
- 세르지오 로시 02-6905-3740
- 루이 비통 02-3432-1854
- 반클리프 아펠 1668-1906
- 샤넬 하이 주얼리 080-200-2700, chanel.com
- 프렉트 02-514-3721
- 디올 파인 주얼리 02-3480-0104
- 다이아니 02-3213-2141
- 피아제 1668-1874
- 보태가 베네타 02-3438-7801
- 에르메스 02-542-6622
- 쇼메 02-2039-3854
- 부엘로티 02-3440-5613
- 생 로랑 by 인토니 바카렐로 02-545-2250
- IWC 02-3440-5876
- 구찌 02-3452-1921
- 틀 포드 02-6905-3534
- 일렉산더 맥퀸 02-6905-3472
- 아디르 02-3479-6120
- 스티븐 웹스터 02-2231-1592
- 브레게 02-3479-1008
- 블랑팡 02-3467-8426
- 소파드 02-6905-3390
- 바세론 콘스탄틴 02-3446-0088
- 오메가 02-3467-8632
- 팬티 02-514-0652
- 자마추 02-3438-6107
- 불가리 02-2056-0170
- 타파니 02-6250-8620

까르띠에 리브 장식의 화이트 컬러 톱과 팬츠 모두 가격 미정 **오스카드 라렌타 by 소유 브라이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회전 링이 감싸고 있는 카보숑 모티브를 위아래로 움직이며 팔레 혹은 길게 연출 가능한 네크리스로 18K 화이트 골드 총 중 55개, 약 0.68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1천3백20만원 **피아제**.

헤어 **강민정**  
 메이크업 **이아영**  
 네일 **최지숙**  
 모델 **라디아(Lydia)**, **자쿰 케이(Jakub K)**  
 스타일리스트 **채환석**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 **김원민**  
 어시스턴트 **배사현**  
 에디터 **성종민**





특유의 캐주얼 쿼팅 패턴이 클래식한 인상을 전하는 다용 라벤더가 캐주얼 레디 미디엄 레디 다용 백, 상그라운 레디 미디엄 백을 입혀 사랑스러운 면모를 한껏 드러냈다. 가격 미정 다음, 문의 02-3480-0104



각진 스트러치 실루엣과 견고한 레더 핸들, 간헐히 로고 버클의 조화가 돋보이는 클래식 크리에이션 톱 핸들 백, 탠 칼라를 적용해 자연스러운 풍우를 연출하는 레디 크리에이션 톱 핸들 백, 각 2백만원대 모두 **삼보트레 데리카모**, 문의 02-3449-5925



클래식 카프트 레더로 제작한 토즈 T 타임리스 라지백 2백70만원대, 고급스러운 헤어드 가죽으로 제작해 견고한 실루엣을 이루는 토즈 T 타임리스 48 H 트래블 백 4백60만원대 모두 **토즈**, 문의 02-3438-6008



일본 디자이너 니코가 재해석한 아이코닉 피스. 블루 대담 소재가 그려진 톱루옹 가죽 위를 올라오는 듯한 모노그램 드림 디자인이 돋보이는 카롤 빈들리에 50 백 3백만원대, 디에이 그래픽아트 스탬프 장식 카롤 빈들리에 50 백 3백만원대 모두 **루이비통**, 문의 02-3432-1854



# Lady days

변함없이 우아하고 사랑스러운 시그너처 백 4.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 perfect weekend

여유로운 주말, 가까운 근교 여행에 안성맞춤인 트래블 빅 백.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부드러운 카프트 레더 소재와 상징적인 LV 로고 버클, 유니크한 메탈 스트랩 장식이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이루는 네비 카무신 백, 화이트 칼라를 적용해 모던한 인상을 전하는 볼 카프트 레디 카무신 백, 각 7백만원대 모두 **루이비통**, 문의 02-3432-1854



간결한 사각모양 실루엣이 균형을 이루는 톱 핸들 백, 양면에 각기 다른 칼라를 적용해 반전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레드와 브라운 칼라를 입힌 피카부 아이씨유 스몰 백, 화이트와 브라운 칼라를 적용한 피카부 아이씨유 미디엄 백, 각 2백만원대 모두 **앤디**, 문의 02-514-0652 에디터 **이주이**



내부에 노트북 케이스와 지퍼 컴파트먼트를 장착한 GG 수프림 캔버스 브라프케이스 3백20만원 구찌, 문의 02-3452-1921 지속 가능한 에코닐 나일론을 활용한 블루 스피릿 다용백 1백70만원 **공방방**, 문의 1670-481



브리타시 스타일의 타탄 트위드와 에버 컬러 카프트 스킨의 멋스러운 조합이 특징인 갤러리 데르메스 백 7백40만원, 견고한 캔버스와 에버그레인 카프트 스킨의 실용적인 조합이 돋보이는 보스타백 1천1백14만원 모두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에디터 **이주이**



아이코닉 패턴

아이코닉 패턴



# Olympic Time Mas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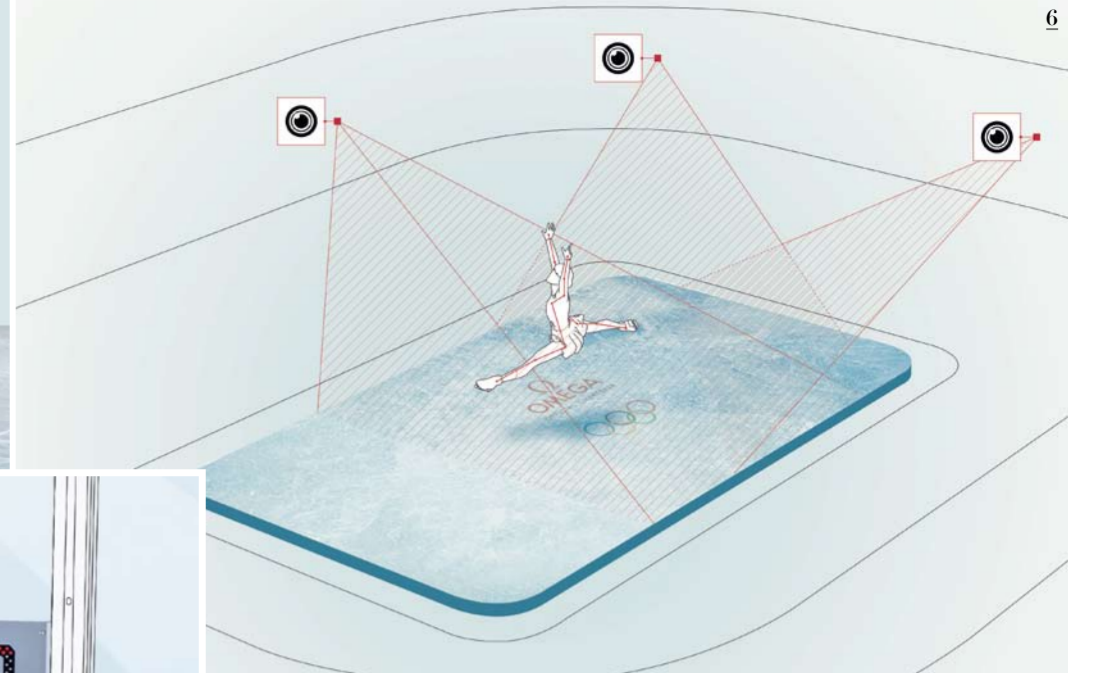


올림픽과 같은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타임키퍼로 활약하는 것은 단순한 시계 브랜드의 홍보 활동이 아니다. 오메가는 1932년부터 2032년까지 올림픽 공식 타임키퍼로 1백 년간 활약할 예정이다, 계속해서 놀라운 업적을 쌓아가는 중. 이번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은 오메가에 30번째 올림픽이다. 최고의 경기를 위해 누구보다도 땀 흘려온 선수들을 위해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기록할 예정이다.

정확성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브랜드 스토리를 이야기 할 수 없을 만큼 오메가는 정확한 시간 측정에 집중해왔다. 시간 측정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요하는 곳은 바로 스포츠. 0.0001초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쇼트트랙 같은 분야에서는 더더욱 정확한 계측이 필요하다.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타임키퍼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켜온 오메가는 운동 경기 기록만 전달하는 오메가 타이밍이라는 계열사를 두고 초정밀 계측에 대한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 완벽을 위한 멈추지 않는 탐구

1932년 처음 올림픽 공식 타임키퍼로 선정된 오메가는 크로노그래프 스톱워치로 모든 경기의 순간을 측정하는 임무를 충실히 완수했다. 1948년에는 포토셀 기술을 개발해 결승선에서 자동으로 시간을 측정할 수 있었고, 2006년에는 운동선수들이 착용하는 특수 트랜스폰더를 고안했으며, 간소화된 미래 지향적 전자식 스타팅 피스톨로 타임키퍼 역사를 새로 쓰기도 했다. 이제는 올림픽에서 스캔 'O' 비전 미러 카메라로 1,000,000분의 1초로 향상된 해상도를 제공하는 퀀텀 타이머를 통해 초를 전자 방식으로 측정하는 포토셀, 플래시 스타팅 건까지 모든 계측 장비에서 오메가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다. 평창 올림픽에서는 봅슬레이 장비에 속도는 물론 시간, 각도까지 모두 측정하는 장비를 부착함으로써 스포츠 경기 기록 자체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한 차원 높은 역할까지 수행했다. 오메가는 신체 능력 향상으로 더욱 빠르고 강력해지는 선수들, 그리고 좀 더 정교하고 까다로운 측정을 원하는 올림픽 주최 측의 기준을 넘어 발 빠르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기록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한편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모션 센서 및 포지셔닝 시스템의 연장선으로 도입되는 기술을 통



해 피겨스케이팅 경기를 훨씬 더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다. 빙면 주위에 배치한 6대의 카메라는 싱글 스케이팅 경기 중 점프 높이와 길이, 선수가 공중에 머무는 시간을 포함해 다양한 실시간 데이터를 포착할 수 있다. 스피드스케이팅 분야에서는 이미지 추적 시스템을 활용한 부정 출발 감지를 진화된 방식으로 선보인다.

## 2022 베이징 올림픽 에디션

올림픽 때마다 개최를 기념하는 에디션을 선보여온 오메가.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에디션에서는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베이징 2022'와 '씨마스터 다이버 300M 베이징 2022'를 선

보인다.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베이징 2022는 스틸로 제작해 41mm 다이얼 사이즈와 브레이슬릿 버전으로 오리지널 모델의 유산과 디자인 요소를 계승하면서도 겨울의 테마를 생생하게 연출한다. 다이얼에는 화이트 슈퍼-루미노바를 채운 블루 컬러 핸드와 인덱스를 올렸고, '씨마스터' 글자와 미닛 트랙의 15·30·45·60분 카운터에는 레드 컬러를 사용해 특별한 패턴과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케이스 백에는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엠블럼을 각인해 스페셜 에디션이라는 진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최고 수준의 정밀도와 성능을 자랑하는 오메가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900을 장착했으며, 5년의 품질보증과 함께 특별한 올림픽 기프트 박스에 담았다.

씨마스터 다이버 300M 베이징 2022 워치 역시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제작한 지름 42mm 케이스와 양각한 다이빙 스케일이 돋보이는 그레이드 5 티타늄 베젤 링으로 정체성을 이어가면서 특별함을 더했다. 블루 세라믹 다이얼에는 슈퍼-루미노바를 채운 로듐 도금 인덱스와 핸즈를 따라 레이저로 각인한 물결 패턴을 더했다.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한 특별한 헌사를 담아 2·4·8·10·12시 방향에는 올림픽 링을 상징하는 다섯 가지 컬러를 적용한 미닛 마커를 배치했다. 케이스 백에는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로고를 스템핑해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오메가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800이 시계 중심부에서 작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전달한다. 화이트 스페셜 기프트 박스에 담아 제공하며 같이 조질 가능한 오메가의 락 앤 푸어 버클을 포함한 풀리싱 및 브리싱 처리한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을 장착했다. 이에 더해 다이버 워치를 계승해 수심 300m에 달하는 방수 기능을 갖추었다. 문의 02-6905-3301 에디션 **아이피**



1 이번 2022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올림픽 대회의 30번째 공식 타임키퍼로 활약할 오메가. 2 1948년 올림픽 최초로 포토셀 기술을 도입하며 타임키퍼 역사의 판도를 바꾸었다. 3 1936년 처음으로 동계 올림픽 경기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오메가. 4 초당 최대 1만 개의 디지털 이미지를 기록할 수 있는 스캔 'O' 비전 미러. 5 스피드스케이팅 분야에서는 추적 시스템을 활용해 부정 출발을 시각적으로 감지한다. 6 빙면 주위에 배치한 6대의 카메라로 피겨 스케이팅 경기에서 점프 높이와 길이, 선수가 공중에 머무는 시간을 포함해 다양한 실시간 데이터를 포착한다. 7 아이스하키 경기에서는 플래시 클라세 통합된 LED 디스플레이를 도입해, 경기 시간과 패널 시간 등 선수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8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베이징 2022. 9 2022 베이징 올림픽을 기념하는 에디션으로 선보이는 씨마스터 다이버 300M 베이징 2022. 10 케이스 백에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엠블럼을 각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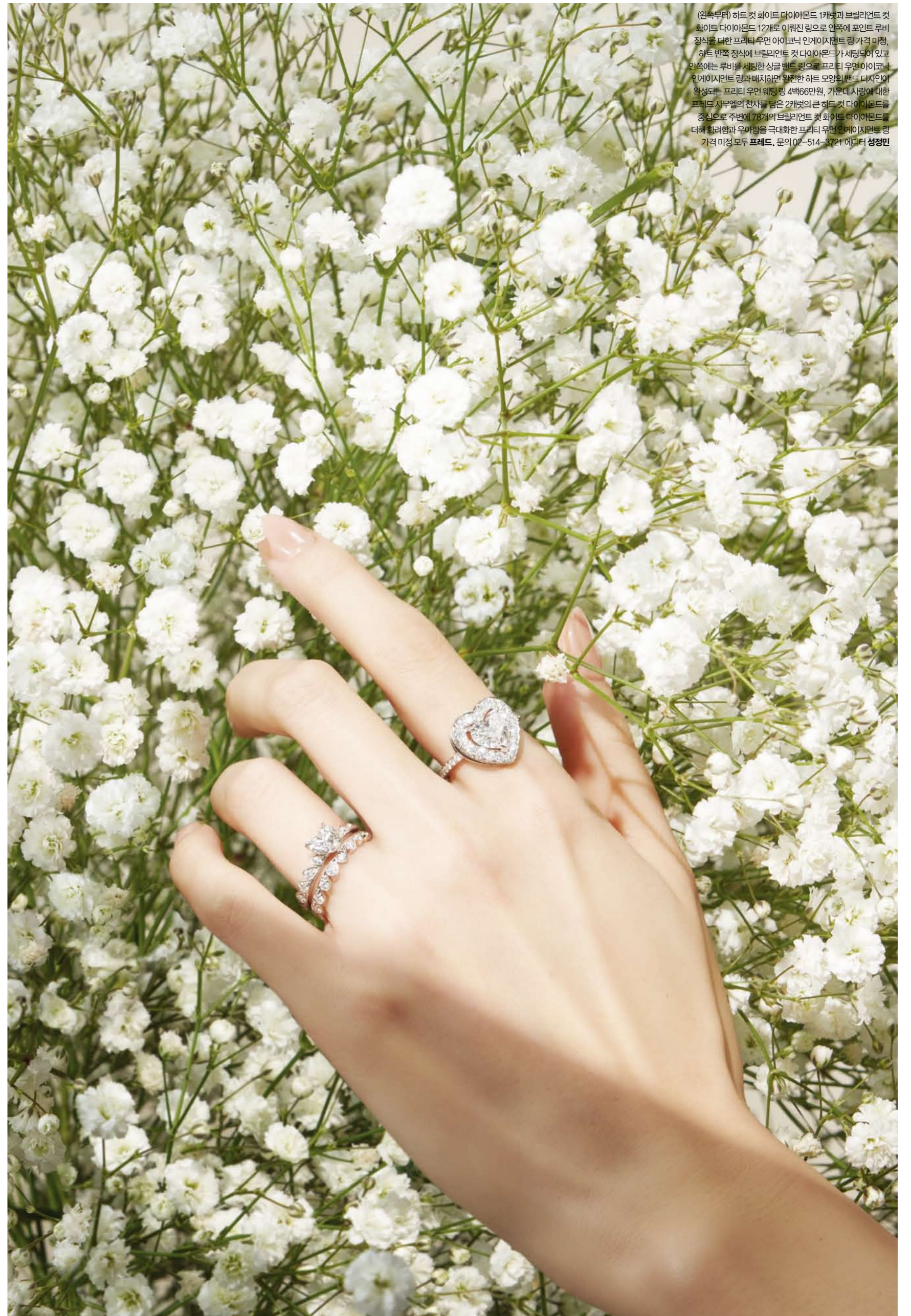
# Love Poem

고결하고 영원한 사랑에 대한 약속을 상징하는  
 프레드의 웨딩 링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프레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케이블 디자인과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이 반반 장식된 포스텐 듀오 링 5백43만원, 프레드 로고가 인그레이빙된 심플한 플래티넘 링으로 갈래는 포인트 다이아몬드가, 안쪽에는 시크릿 루비 장식이 있는, 여성 모델이 착용한 프레드 포 러브 웨딩 밴드 1백98만원, 볼드한 플래티넘 링에 프레드 로고가 인그레이빙되어 있고 안쪽에 비일스러운 루비 장식을 더한, 남성 모델이 착용한 프레드 포 러브 웨딩 밴드 2백49만원 모두 프레드, 문의 02-514-3721

● sponsored by FRED  
 모델은 김홍진, 정무환



(왼쪽부터) 하트 컷 화이트 다이아몬드 1캐럿과 브릴리언트 컷 화이트 다이아몬드 12개로 이뤄진 링으로 안쪽에 포인트 루비 장식을 더한 프리드 루비 아이코닉 인그레이빙트 링 가격 미정, 핑트 반쪽 장식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어 있고 안쪽에는 루비를 세팅한 싱글 밴드 링으로 프리드 루비 아이코닉 인그레이빙트 링과 매치하면 일관한 하트 모양의 핑드 디자인이 완성되는 프리드 루비 웨딩 링 4백66만원, 가운데 사랑에 대한 프레드 사무엘의 찬사를 담은 2캐럿의 큰 하트 컷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주변에 78개의 브릴리언트 컷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더해 화려함과 우아함을 극대화한 프리드 루비 인그레이빙트 링 가격 미정 모두 프레드, 문의 02-514-3721 에디터 상정민

# Men in Style

신물하기 좋은, 작지만 실용도 높은  
 맨즈 액세서리 리스트.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왼쪽부터 시계 방향) 반짝이는 에니멜 스카족 소재의 카드 지갑 46만원 **프리다**, 문의 02-3218-5320, 파일럿 브라운과 필라델피아 데칼 디자인을 다룬 다름 브라운 개성 있는 연줄을 도와줄 선글라스 52만원 **벤디**, 문의 02-6905-3717, 매력적인 스카이 블루 컬러의 토고 카프 스킨 소재 '식아 데카슈 크로스 백' 50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세련된 울 블러 캠퍼 디자인의 무선 스마트 헤드폰으로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우수한 음향 성능을 갖췄다. 83만원 **몽블랑**, 문의 1670-4810, 섬세한 우븐 가죽 소재의 다름 캠프 브라운 29만원대 **토즈**, 문의 02-3438-6008, 한쪽은 LV 이니셜로, 다른 한쪽은 모노그램 플라워 모양의 대비되는 두 가지 디자인과 마감으로 세련된 룩을 완성해줄 LV 인스티트 컵스 링크 69만원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옐로 골드 소재에 가운데 판이 들어가는 스타일의 링으로 한쪽에는 딱정벌레 문양을, 다른 한쪽에는 블랙 에니멜에 골드 리본을 새겼다. 3백50만원 **스티븐 워터**, 문의 02-2231-1592, 크로스된 테라스 라켓 문양을 프린트한 패턴 타이 17만원대 **폴로 로렌**, 문의 02-6004-0220, 돌려가며 사용할 수 있는 듀오 페스 콘셉트의 워치로 그래픽 처리한 샵비 다이얼과 아름다운 블루 컬러 다이얼을 번갈아가며 사용할 수 있다. 모든 다이얼에 문메이즈를 장식한 놀라운 컴플리케이션을 보여주는 라베르스 트리뷰트 문 워치 1천9백만원대 **에거 르블랑**, 문의 1670-1833, GG 로고 패턴이 새겨진 벨벳 소재에 금장을 다룬 1백14만원 **구찌**, 문의 02-3452-1921 **에디터 성장민**

이시영 기자

# Gift for a Man

현대적인 감성과 시계의 본질적인 정밀함, 디자인과 강한 끌림을 모두 담아남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IWC 샤프하우젠의 빅 파일럿 워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시계의 본원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IWC 빅 파일럿 워치 시리즈는 완벽에 가까운 기술력과 내구성, 그리고 미학적 가치까지 겸비한 수작으로 평가 받는다. 블루 스텔이 다이얼 위에 올린 흰색 숫자 인덱스가 명료한 가독성을 그려내며, 원뿔 모양 오버사이즈 크라운과 군더더기 없는 명확한 디자인이 우아하고 강인한 품위를 선사한다. 오는 2월 14일, 연인을 위한 차별화된 선물을 찾는 이들에게, 빅 파일럿 워치가 근사한 아이디어가 되어줄 것이다.

## Big Pilot's Watch 43

남다른 감도와 이치적인 분위기를 추구하는 이라면 빅 파일럿 워치 43 모델을 눈여겨볼 것. 항공 시계의 진가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이 모델은 간결하고 기능적인 조종석 계기판 디자인과 원뿔 형태 오버사이즈 크라운으로 오의 자칫 디자인을 충실하게 따른다. 지름이 43mm임에도 매종 특유의 마감으로 완성한 간결 명료한 실루엣 덕에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우스 고유의 이지 X 체인지 시스템을 통해 카프 스킨과 러버 스트랩 옵션으로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는 것도 장점. 자체 제작 칼라버 82100에서 동력을 얻으며 6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100m 방수 기능을 갖추었다. 미세 조정 시스템을 적용한 인체 공학적 테이퍼드형 스테인리스 스틸은 편안한 착용감까지 갖춘 이상적인 이터이다. 빅 파일럿 워치 43 1천2백만원.

## Big Pilot's Watch Perpetual Calendar

하이엔드 컴플리케이션으로 정교한 기계식 워치의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는 이 모델은 지름 46.2mm 케이스에 날짜, 요일, 월 디스플레이, 그리고 네 자리 연도 표시창과 문메이즈 인디케이터를 일목요연하게 담아낸 패배추얼 캘린더 모델이다.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블루 다이얼, 블루 카프 스킨 스트랩이 세련된 앙상블을 이루며, 매달 달라지는 날짜 수와 윤년을 자동 계산해, 2100년까지 수동으로 조정할 필요가 없다. 80여 개 개별 부품으로 극도로 정밀하게 설계한 자체 제작 52615 칼리버의 캘린더 모듈은 자정에 날짜가 단일 전환하도록 구동한다. 심한 지극에도 끄떡없는 세라믹 소재를 필리핀 와인딩 시스템에 적용해 강한 내구성을 갖추었으며, 2개의 배럴 덕에 7일간의 파워 리저브를 지원한다.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적용한 투명한 케이스 백을 통해 매뉴얼러 무브먼트의 다이나믹한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다. 빅 파일럿 워치 패배추얼 캘린더 3천8백50만원, 모두 IWC. 문의 1670-7363 **에디터 이우이**

● sponsored by IWC

# The Great Jewel

로마의 역사와 문화에 기반해 하우스의 무한한 상상력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불가리의 매그니피카(Magnifica) 하이 주얼리 컬렉션. 화려한 유색석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주얼 세공 기술, 그리고 현대적인 디자인이 앙상블을 이룬 황홀한 주얼리의 세계로 초대한다.

1백38년 역사를 자랑하는 불가리는 시대의 변화와 유행을 뛰어넘는 창의적이고 대담한 스타일로 시즌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이끌어낸다. 이탈리아 특유의 창의성과 로마의 화려함이 깃든 대담한 디자인, 관능적인 볼륨감, 독창적인 컬러 조합,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의 뿌리에서 영감을 받은 건축적 디테일로 정의되는 불가리 스타일은 늘 시선을 사로잡는다. 최상의 원석만 사용한 불가리 하이 주얼리 컬렉션 매그니피카(Magnifica)는 정교한 세공 기술로 화려하고 대담한 유명 예술 작품을 소장하는 것과 같은 환상적인 희열을 안겨준다. 제작에만 무려 10만 시간의 정성이 담긴 고귀한 가치를 지닌 1백10여 점 중 대표 모델을 꼽아 소개한다. 빛을 가득 담은 보석을 장인의 손으로 다듬어 완성한 매그니피카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이름만큼이나 위대하고 장엄한 마스터피스 세계를 열어줄 것이다.

## 셀레스티얼 스카이(Celestial Sky)

셀레스티얼 스카이 네크리스는 바로크 양식을 따는 산탄드레아 델라 발레(Sant' Andrea della Valle) 성당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선과 면이 이루는 기하학적 패턴을 다양한 방향으로 교차해



보다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젠슨을 여러 레이어로 세팅해 최상의 빛과 컬러를 구현했다. 1백50여 개의 크고 작은 조각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13.55캐럿의 스리랑카산 오벌 컷 사파이어를 중심으로 루벨라이트 비즈와 비프 톱 사파이어,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다채로운 빛과 컬러를 뽐낸다. 기하학적 요소로 완성한 디자인과 보석의 컬러가 균형과 반전을 이루며 온화함과 강인함을 자아내고, 시대를 초월한 현대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 메디테라니안 퀸(Mediterranean Queen)

골드와 다이아몬드의 구조가 바다의 파도를 연상시키는 이 제품은 1969년에 선보인 불가리 네크리스를 재해석한 모델이다. 제작에만 무려 2천4백 시간이 소요된 이 네크리스는 로마 주얼리의 대담하고 과감한 에티튜드를 표현한다. 총 5백 캐럿에 달하는 5개의 오벌 쿠션 컷 파라이바 투르말린을 카보숑 컷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로 유려하게 감싸 곡선미를 강조했다. 맑은 자중해 바다를 연상시키며 순수함과 신선함을 담아낸다.

## 다이아몬드 스완(The Bvlgari Diamond Swan)

1930년대 유럽을 풍미했던 아르 데코 사조의 대표적 예술가 타마라 드 렘피카(Tamara de Lempicka)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이 네크리스는 우아하고 부드러운 여성미를 상징하며 아르데코 예술에서 자주 등장하는 요소인 백조를 오마주한



© Sponsored by BVLGARI



다. 이 네크리스는 백조가 지닌 도도함과 겸손함이라는 상반된 특성을 담아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극대화한다. 눈에 핑크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두 마리 백조가 서로의 날개 밑에 머리를 숨기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으며, 다이아몬드를 풀 세팅한 새의 날개 모티브에는 머티오브펠을 더해 깃털의 고급스러운 움직임과 가벼운 느낌을 표현했다.

## 루비 메타모포시스(Ruby Metamorphosis)

다이아몬드 초커와 체인 등 탈착 가능한 피스로 이루어져, 최소 아홉 가지의 다양한 방식으로 착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하이 주얼리 피스는 불가리의 무한한 상상력을 대변한다. 네크리스 하나를 완성하는 데 무려 2천5백 시간이 소요된다. 10.02캐럿 엔틱 쿠션 컷 모잠비크 루비를 중심으로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와 카보숑 컷 루비를 세팅하고 실크같이 관능적인 태슬 스타일로 제작해 고풍적인 아름다움을 부각했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태슬과 펜던트, 네크리스는 마디마디 나누어진 섬세한 구조를 갖춘 덕분에 쉽게 변형해 착용할 수 있다.

## 매그니피카 루비 메타모포시스 하이엔드 워치 (Magnifica Ruby Metamorphosis High-end Watch)

불가리의 장인 정신과 스위스 워치메이킹 노하우를 결합해 선보이는 하이엔드 워치. 플래티넘을 바탕으로 6.3캐럿의 엔틱 쿠션 컷 루비를 시계 커버에 올려 시선을 이끈다. 이탈리아의 매력적인 노을 빛을 연상시키는 강렬한 레드 톤이 바게트 컷 루비, 다이아몬드와 앙상블을 이루며 유기적으로 정교하게 연결된 브레이슬릿은 손목을 관능적으로 감싼다. 불가리 보석 세공 기술의 진수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퀴즈 무브먼트를 탑재한 시크릿 워치다.

## 컬러 리플(Color Ripple)

맑은 연못에 놓인 아름다운 조약돌처럼 골드 플레이트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컬러 젠슨이 매혹적인 네크리스. 다채로운 빛을 연출하는 오벌 카보숑 컷 블루 토파즈, 시트린 퀴즈, 에미시스트, 루벨라이트, 투르말린이 화려한 조화를 이루고, 여기에 머티오브펠의 은은한 매력을 더해 우아함을 한층 강조했다. 혁신적이고 대담한 디자인에 하우스 특유의 생기 넘치는 컬러 조합으로 삶의 기쁨을 담아냈다. 문의 02-726-4588 **에디터 이주이**



1 사파이어와 루벨라이트를 주축으로 블루와 레드, 화이트 다이아몬드의 조합이 낙첨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셀레스티얼 네크리스와 시크릿 워치. 2, 3 에메랄드와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콜레타일 본드에 153.01캐럿의 모잠비크산 쿠션 컷 파라이바 투르말린과 3백19.91에 달하는 4개의 모잠비크산 오벌 컷 파라이바 투르말린을 포인트로 세팅한 메디테라니안 퀸 네크리스. 4, 5 초커 스타일부터 펜던트, 브리지 등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는 루비 메타모포시스. 6 퀴즈 무브먼트를 장착한 루비 메타모포시스 시크릿 워치. 7 타마라 드 렘피카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다이아몬드 스완 네크리스. 8 모잠비크산 엔틱 쿠션 컷 루비를 메인으로 세팅한 루비 메타모포시스 링. 9 하우스의 생동감 넘치는 컬러 조합을 엿볼 수 있는 컬러 리플 네크리스. 루벨라이트와 투르말린, 에미시스트의 시트린 퀴즈 그리고 토파즈로 다채로운 컬러를 담았다.

# Beauty ahead of Time

매번 시대를 앞서가는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과 해답을 제시하는 샤넬이 또 한번의 도전으로 뷰티계의 혁신을 선보인다. 가브리엘 샤넬의 상징, 레드 까멜리아의 강인한 생명력을 담아 탄생한 최초의 홀리스틱 안티에이징 뷰티.



활력을 지켜주는 레드 까멜리아 추출물을 풍부하게 함유해 다섯 가지 피부 노화 징후를 개선하는 레드 까멜리아 세럼 30ml 15만원.



## 샤넬의 시그니처, 까멜리아에서 시작하다

까멜리아를 핵심 원료로 한 새로운 스킨케어의 탄생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있었다. 이전 1백 년간 향수의 핵심 원료인 꽃 재배에 대한 노하우를 지닌 샤넬은 1988년부터 샤넬 스킨케어의 진정한 발상지라 할 수 있는 오픈-스카이 연구소를 기반으로 마드모아젤 샤넬을 상징하는 꽃, 까멜리아를 연구해왔다. 겨울에 피는 꽃인 까멜리아는 샤넬에게 아주 큰 영감을 주었다. 추위를 견디면서도 가장 풍성하며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이 원료에 노화의 비밀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샤넬은 확신했다. 까멜리아 고유인 자연적 속성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 농업 생태학과 산림생태학을 활용한 실험적이고 친환경적인 재배 방식에 따라 까멜리아를 재배하고 관찰한 샤넬은 까멜리아 중 '차르(Czar)'라는 품종에서 얻은 레드 까멜리아 추출물의 놀라운 특성을 밝혀냈다. 이 성분은 기존 까멜리아에서 볼 수 없었던 강력한 분자인 프로토키테루산(protocatechuic acid) 농축물을 함유하고 있다. 피부 노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인 초기 단계에 적용해 피부 활력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핵심 성분이기도 하다. 이 특별한 성분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샤넬 뷰티의 차세대 안티에이징 뷰티 라인인 N°1 DE CHANEL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

## 노화의 징후에 대한 새로운 접근

주름, 떨어진 피부 탄력 등 피부 노화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발견되는 듯 보이지만 사실 이전부터 축적되어온 생활 습관이나 외부 환경에서 오는 자극과 연관되어 있다. 샤넬 연구소는 10여 년간 세포 노화 분야의 전문 연구자들과 협업해 세네스스(senescence)라 불리는 노화의 징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터득해 제시한다. 피부 노화의 징후는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과 스트레스, 자외선, 오염 물질 등으로 세포가 활력을 잃으면서 나타나는 것. 노화가 시작된 세포는 분열을 멈추고 제거되지 않는데, 이는 다른 활성 세포의 기능을 방해해 노화 징후를 촉진한다. 샤넬은 레드 까멜리아 추출물이 이러한 노화의 첫 단계에서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된 까멜리아 추출물은 피부 속 세포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뿐 아니라 스트레스로부터 피부 세포를 보호해 다른 건강한 세포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한다. 이로써 피부 노화가 더디게 진행되도록 도우며 지속적으로 건강하고 광채 나는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지속 가능성을 위한 패키지

환경문제와 지속 가능성을 위한 뷰티 브랜드의 노력은 필수 과제가 되었다. 시대를 앞서가는 정신을 지향하는 샤넬 역시 이번 N°1 DE CHANEL 라인에 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포뮬러와 패키지를 적용,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먼저 포뮬러의 경우 재생 가능한 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 자연 유래 성분을 함유한 클린 포뮬러를 사용한다. 제품의 효과나 안정성, 감각적인 경험을 모두 만족시키면서도 자연 유래 성분을 최대 97%, 까멜리아 성분을 최대 76% 함유했으며 꽃잎과 씨앗, 효모까지 모두 사용해 쓰레기를 줄였다. 패키지 또한 마찬가지. N°1 DE CHANEL 라인 전체 디자인을 간소화했고 제품의 무게는 평균 30%, 특히 크림은 50%까지 무게를 줄였다. 또 전체 라인의 80%를 재활용이 용이한 유리로 제작했으며, 크림의 경우 리필 가능한 패키지로 선보인다. 이외에도 셀로판 소재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고 종이 인서트 대신 QR코드로 대체하는 등 종이 하나까지 절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틀에 사용되는 잉크까지 친환경 잉크를 사용했고 모든 제품의 캡에는 재활용 소재 혹은 식물에서 공급받은 바이오 소재를 사용했다. 특히 크림의 캡은 까멜리아의 씨앗 껍질을 활용해 만들어 환경보호를 위한 지속 가능한 패키지 제작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 홀리스틱 안티에이징 뷰티 라인 N°1 DE CHANEL

까멜리아의 놀랍고 혁신적인 효능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라인업으로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하는 샤넬. 피부 관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클렌징 제품부터 스킨케어 첫 단계에서 피부를 깨워줄 토너, 미스트뿐 아니라 피부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줄 세럼과 아이 크림, 크림까지. 더불어 메이크업 단계에서도 피부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레드 까멜리아 피운데이션과 치크 밤을 선보였을 뿐 아니라, 까멜리아 꽃을 연상시키는 풍부한 플로럴 노트를 지닌 레드 까멜리아 향수까지 출시해 이천년부터 발간해 온 레드 까멜리아를 온몸으로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노화 징후 개선의 핵심인 레드 까멜리아 세럼은 피부 활력을 지켜주는 레드 까멜리아 추출물을 풍부하게 함유해 주름, 모공, 탄력 저하, 불균감과 광채 부족까지 다섯 가지 피부 노화의 징후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95%의 자연 유래 성분과 76%의 까멜리아 추출 성분으로 이뤄져 있으며, 상쾌한 감촉을 선사하는 투명한 젤 텍스처는 즉각적으로 흡수되어 끈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민감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레드 까멜리아의 은은한 플로럴 향과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는 벨벳 텍스처의 레드 까멜리아 크림으로 마무리하면 미세 주름까지 매끄럽게 케어하고 피부에 편안함과 광채를 남기며 도시의 유해 요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에디터 선정인**

1 워터충과 오일충으로 나누어 있는 2단 포뮬러로 피부에 즉각적인 활력과 생기를 선사하는 레드 까멜리아 미스트 50ml 12만4천원, 2 까멜리아 꽃을 연상시키는 풍부한 플로럴 노트로 까멜리아의 상쾌함을 표현한 레드 까멜리아 향수 100ml 16만원, 3 핵심 성분인 레드 까멜리아, 4 레드 까멜리아 추출물과 까멜리아 오일을 함유한 벨벳처럼 부드러운 텍스처의 크림 50g 14만원, 5 인술과 치크에 알티모 활용 가능한 크리미한 텍스처의 알라 밤으로 까멜리아 오일과 식물성 왁스를 풍부하게 함유했다. 6.5g 5만9천원, 6 N°1 DE CHANEL의 전체 라인으로 스킨케어 제품부터 메이크업 제품까지 일차계 구성된 홀리스틱 안티에이징 뷰티 라인. 문의 080-805-9638, www.chanel.com

# Romantic Bubble

연인을 위한 사랑의 묘약, 브뤼 샴페인.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모엣 & 샴통 임페리얼 1백 가지 와인들**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최상의 블렌딩을 맛볼 수 있다. 따뜻한 사과와 감귤 향, 브리오슈와 건과류의 달콤함이 열게 감칠맛이 매력적인 풍미를 이룬다. 750ml 6만8천원. 문의 02-2188-5100

**뎀 그랑 고프르** 최고급 파노 누아의 뚜렷한 개성을 경험할 수 있으며, 사과, 복숭아, 피칸넬 등 산도 높은 과실 베이스에 바닐라와 캐러멜로 이어지는 고급스러운 풍미가 일품이다. 부드러운 기포와 함께 신맛한 신도가 전해지며 오랫동안 여운이 남는다. 750ml 10만원대. 문의 02-3466-5701

**페리에 주에 그랑 브뤼** 아카시아, 산사나무의 진하고 화려한 향기와 풋풋한 배 등 흰 과일 아로마의 캐러티가 선명하게 느껴진다. 라이트한 질감과 생세하고 부드러운 버블을 지닌 신선하고 깊이 있는 맛. 750ml 10만원대. 문의 02-3466-5701

**브리 블리코 옐로 레이블** 특 쓰는 시트러스 향에 알인이 순식간에 깨운다. 신선한 여름 과일 아로마에 건포도와 바닐라, 브리오슈로 이어지는 감미로운 풍미가 특징이다. 뒷맛이 깔끔해 전체 요리부터 메인, 디저트 등 어느 음식과도 잘 어울린다. 750ml 7만5천원. 문의 02-2188-5100

**크루그 그랑 쥐베 169 에디션** 7년만의 숙성을 거쳐 세상에 선보이는 프레스토지 샴페인. 말린 시트러스 과일, 헤이즐넛, 누가, 아몬드, 꿀의 풍미를 담고 있어 향이나 치즈를 곁들인 식전주나 갈라쥬 요리와도 페어링이 일품이다. 담근 케이크 등의 디저트에도 잘 어울린다. 750ml 33만원. 문의 02-2188-5100 **에디터 리뷰**

이탈리아

# Luxe for Care

귀한 성분과 첨단 피부 과학이 만나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효과를 선사하는 독보적인 스킨케어 라인업.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부터) **시슬리 랭데그랄 앙타-이주 레디언스 세럼** 다크 스폿의 원인인 멜라닌 합성을 감소시키는 시슬리 연구소의 새로운 활성 성분인 라신을 추출물과 피부 산소화 메카니즘을 통해 새로운 다크 스폿 생성을 막고 피부에 광채를 부여하는 하이테크놀로지 세럼 30ml 57만원. 문의 080-549-0216

**에스티 로더 라-뉴트리브 알티미트 다이아몬드 트랜스포머티브 에치 크림** 프랑스 남사부 지방에서 얻은 진귀한 블랙 다이아몬드 추출물과 혁신적인 과학 기술인 유스-사스테이닝 테크놀로지, 콜라겐 테크놀로지가 만나 피부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용해 노화를 개선하는 크림 50ml 56만7천원대. 문의 02-6971-3212

**겔랑 오트데 임페리얼 5G 더 크림 & 리프래쉬 크림** 전설의 오트드로 불리는 가스트로디아 에라타와 공중으로 뿌리를 키우며 성장하는 독특한 자생력을 지닌 멘드로비움 팜브리아눔의 비범한 생명력을 담은 고농축 포물리로 눈에 띄는 피부 개선 효과를 선사한다. 50ml 66만원대. 문의 080-343-9500

**리모라리 스킨 케어 라뮌 리프트** 속부터 차오르는 피부 탄력을 위한, 두 가지 케어가 결합된 포물리로 풍부한 영양을 선사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탄력 있고 매끄러운 피부로 바꿔주는 세럼 50ml 93만5천원. 문의 02-511-6626

**사벨 뷰티 수블리마지 레장스 풍디멘탈** 노화에 대항하는 젊은 단백질의 발현을 촉진하는 자연 유래 솔라노 추출물을 담은 세럼으로 피부에 활력을 불어 넣어 속부터 탄탄하고 건강한 피부로 바꿔준다. 40ml 62만5천원. 문의 080-805-9638

**다올 뷰티 로즈비 라 크렘리 리치** 극성하게 건조한 기후에도 높은 수분을 유지하는 놀라운 능력을 지닌 이집트 포도나무의 탁월한 항산화 피부와 영양 성분으로 다올 스킨케어의 첨단 테크놀로지를 결합해 완성한 크림으로 피부 균형과 본연의 힘을 되찾아준다. 50ml 68만4천원대. 문의 080-342-9500

**데코르테 AQ 일리오라티 인텐시브 리제-쿠어팅 멀티 크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청정 환경의 일본 야쿠사마섬에서 소중히 재배한 배니후우키 추출물을 주요 성분으로 진귀한 원료를 조합해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는 혁신적인 텍스처에 담아낸 크림 45g 1만502만원대. 문의 080-568-3111

**이모레시퍼 타임 레스폰스 인텐시브 리뉴얼 앰플** 장인 장식으로 일류품 돌송이 차원에서 추출한 성분을 담은 고효능 4주 프로그램 앰플로 피부의 각질량, 가습기, 투명도, 차광도까지 빈틈없이 개선한다. 7ml+0.6gX4 62만원대. 문의 080-020-5757 **에디터 선정**



이탈리아

# editor's Pick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피부를 위한 새해 첫 솔루션.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jeong jin young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코달리 비노수르스 하이드라 SOS 써스트 쉐빙 세럼** 포도수 성분을 함유한 수분 세럼. 갈도는 느낌 없이 비크리자 피부에 비로 스며 들는 가벼운 질감이라 다음 단계 제품으로 넘어가기 쉽다. 파란색, 페스메탄을, 살리코, 동물성 성분 등을 함유하지 않은 97% 식물 유래 성분. 재흡수 가능한 제품 용기도 합작이다. 30ml 5만원. 문의 02-6011-0212. *by 에디터 장미윤*

**버버리 키세스 매트 더 레드 #106** 매트한 텍스처로 경량할 수 있는 버버리의 클래식 레드. 매트 타입임에도 부드럽게 발려 입술에 자연스럽게 퍼지는데, 놀라울 만큼 가벼운 텍스처가 자꾸만 덧바르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킨다. 허탈루산 성분을 함유해 충분한 보습력을 발휘하는 아이옴. 3.3g 4만5천원. 문의 080-850-0708. *by 에디터 이주이*

**포아레 랑스 아 마카야쥬 푸르도** 아무리 훌륭한 제품이라도 바르는 방법이 잘못되면 부조리라는 사실을 몸소 느끼게 해준 마법 같은 아이옴. 모가 충출한 원형 타입으로 피부의 메이크업 제품을 바를 때 적합하다. 얼굴 중앙부터 바깥쪽으로 동글게 원을 그리며 가볍게 쓸어주면 자극 없이 요철을 감춰준다. 15만원. 문의 02-310-5025. *by 에디터 이주이*

**스위스퍼펙션 셀룰라 바이올리이징 핸드크림** 손을 씻고 나면 꼭 핸드크림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에디터는 7방 속, 사무실 책상, 짐에는 거실과 주방 등 네 곳에 핸드크림을 놔두고 수시로 바른다. 향이 너무 강하거나 꾸민듯해서 흡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선호하지 않는데, 이 핸드크림은 빠르게 스며들고 즉각 촉촉해져 부드러운 여운을 남긴다. 75ml 10만5천원. 문의 1644-4490. *by 에디터 장미윤*

**에스티 로더 더발웨어 24H 워터프루프 쉐이 아이 팬스** 사용하지마자 생략하고 부드럽게 그려는 사용법에 감동했다. 지속력을 걱정했지만 아이옴부터 발까지 번짐 없이 깨끗한 눈가에 또 한 번 보였다. 라인을 잘못 그렸을 때 위에 있는 틸로에 살짝 수정할 수 있어 편의성까지 높다.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아이러이다. 1.2g 3만6천원. 문의 02-6971-3212. *by 에디터 성정민*

**샤넬 뷰티 N°1 DE CHANEL 레드 까멜리아 파운데이션** 피부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텍스처와 컬러부터 비크리자 피부 온도를 한층 내려주어 진정시키는 레드 까멜리아 색상의 파운데이션까지. 너무 톡톡나 무겁지 않게 커버해줘 자연스럽고 은은한 윤기가 흐르는 피부 표현을 완성할 수 있다. 30ml 9만9천원. 문의 080-805-9638. *www.chanel.com* *by 에디터 성정민*

**모로칸오일 브롬 드 미르코** 해피에 수시로 분사하면 햇빛 노출로 인한 모발 손상을 방지해주고 분연의 컬러 유지까지 도와주는 특별한 제품. 겨울에 피부민감 건조해져 푸석거리는 에디터의 건성 헤어에 안성맞춤이다. 사용하면서부터 확실히 파슬거리는 것이 줄었는데, 무엇보다도 지중해의 싱그러움 향이 분사될 때마다 기분 좋게 만들어준다. 보드에 사용해도 좋다. 30ml 2만5천원. 문의 1666-5125. *by 에디터 장미윤*

**엘리리 코어 파워 퍼스트 에센스** 리뉴얼되기 전 제품을 사용한 적이 있어 혁신적인 MTD-EGF 기술의 효과는 익히 알고 있었다. 이번 제품 역시 즉각적인 피부 개선 효과가 놀랍다. 바르는 순간부터 피부에 보습력을 한 겹 씌우는 기적. 거의 한 달째 사용 중인데 피부결이 매끈해지고 피부 조작성이 한층 더 탄탄해진 듯하다. 155ml 5만2천원. 문의 1568-7667. *by 에디터 성정민*

**랑콤 어드밴스드 제노-미** 3세대로 선보이는 시그니처 아이옴. 피부에 유익한 유산균으로 작용하는 7종류의 프리 &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해 건강하게 차오른 피부 빛을 구현한다. 텍스처는 기본 좋게 발려 산뜻하게 흡수되는 가볍고 점성 있는 에센스 타입. 꾸준히 사용하게 될수록, 울긋불긋한 피부결의 균열이 비로잡힌 듯하다. 75ml 20만4천원. 문의 080-022-3332. *by 에디터 이주이*

**프래시 플로럴 리카버리 크림 마스크** 찬 공기와 미세먼지, 허터 바람으로 거칠어지고 울긋불긋해진 피부로 고민하던 참이었다. 세안 후 비로고 차고 일어나니 자극받았던 피부가 한층 진정되고 눈에 띄게 매끈해졌다. 마스크지만 데이 타입에 사용해도 밀림 없이 하루 종일 편안하고 수분 락 찬 피부를 유지해주니 만족스럽다. 씻어내지 않아도 되어서 크림처럼 사용해도 무방할 듯. 100ml 8만8천원. 문의 02-3479-6202. *by 에디터 성정민*

**디올 뷰티 3 컬러 트리오 블리크 #733 코발트 글로움** 이로부터 차세대로 걸음이 눈에 띄게 타사해지면 보다 입체적이고 우아한 눈매를 연출할 수 있다. 시안 앵버 컬러를 중심으로 파피와 진꽃빛 컬러를 구성해 콜 투톤보다는 핑 톤에 더 잘 어울리는 컬러 구성이다. 부드럽게 발리는 크림 타입으로 크리드 현상 없이 가볍게 밀착된다. 하우스의 아이옴테티를 반영한 광택한 패키지는 소장 욕구를 자극한다. 3.3g 8만8천원. 문의 080-342-9500. *by 에디터 이주이*

**셀랑 리르 & 라 마테르 컬렉션 #상할 피오 로사 오 퍼플** 유디 계열의 중성적인 향을 고수해온 에디터의 마음을 사로잡은 향기. 선텔우드와 장미를 조합해 목직하면서도 산뜻한 분위기를 낸다. 우향과와 허버 노트를 조미료처럼 더해 보다 깊은 향을 느낄 수 있으며, 아이저는 이국적인 분위의 카리움과 카이우드가 짙은 여운을 남긴다. 200ml 70만6천원. 문의 080-343-9500. *by 에디터 이주이*

**구찌 뷰티 베르나 아 몽골리 레드 25** 알레산드로 미켈레가 가장 좋아하는 총 10개의 세이트로 구성된 새로운 내일 컬렉션 중 레드 25는 생동감 넘치는 길고 강렬한 광택이 특징. 바르는 즉시 손등 표면에 부드러운 막이 생성되어 완벽한 컬러를 균일하게 바를 수 있다. 반트지 내일 플러시 병에서 영감을 받은 케이스도 소장작이다. 10ml 4만원. 문의 080-850-0708. *by 에디터 장미윤*



# SHOW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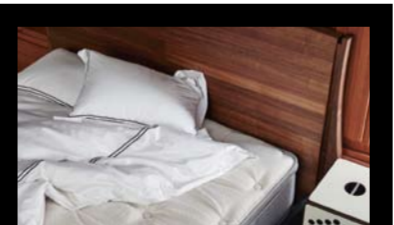
## BEAUTY



**라프라리 'Hold Time in Your Hands'** 브랜드의 아이옴테티를 담은 새로운 로고와 브랜드 스토리를 소개하면서 2022년 캠페인으로 '손에 넣은 시간의 이름' Hold Time in Your Hands'을 공했다. 새로운 로고는 이데코 운동에 영감을 받아 제작한 유선형 대문자의 우아한 로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더 날렵하고 기동성이 높아져 세련된 이미지를 전달한다. 문의 02-511-6626

**에스티 로더 리-뉴르리는 얼티밋 다이아몬드 트랜스포머티브 브릴리언스 세럼** 에스티 로더 럭셔리 스킨케어 컬렉션 리-뉴르리는 라에서 새로운 세럼을 출시했다. 블랙 다이아몬드 트라를 추출물을 핵심으로 바타닌 C와 연구를 통해 개발한 유스-서스테이닝 기술이 만나 부드럽고 밝은 피부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문의 02-6971-3212

**프라다 루나 로사 오션 EDT 2022년** 여름을 기다리며 바닷속 깊은 곳으로 잠수하는 순간을 표현한 디자인의 향수를 출시했다. 시트러스 플로럴 유니 게 열의 향수로 수평선을 그리는 듯한 향기를 느낄 수 있다. 문의 080-363-5454



**시론스 웨딩 프로모션 2월을 맞아** 시론스 웨딩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특정 매트리스 구매 시 15%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다양한 시용품을 선착순 증정한다. 더불어 얼리버드 배송 추가 할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신제품 프레임 10% 할인, 매트리스를 구매할 모든 고객에게 솔리드 커버 증정 등의 이벤트를 진행한다. 문의 1899-8182

## LIFESTYLE



**그라프 와일드 플라워 컬렉션** 전통에서 벗어나 새롭게 피어난 꽃을 한복적으로 재해석해 신선한 시선으로 비로본 이번 플라워 컬렉션은 섬세한 꽃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주얼이다. 정교하게 빛을 꽃잎은 마치 조각 같은 입체감과 자연스러운 비로본 디자인으로 생동감을 선사한다. 문의 02-2256-6810



**오메가 새로운 스피드마스터** 최초의 스피드마스터에서 영감을 받은 이번 모델은 다이얼 지름 44mm와 44A의 파워리저브를 갖췄다. 문의 1670-7363

**오메가 새로운 스피드마스터** 최초의 스피드마스터에서 영감을 받은 이번 모델은 다이얼 지름 38.6mm의 18K 카노투스 골드 케이스로 제작했다. 수장기들에게 가장 많은 기대를 받는 내후 무브먼트는 1957년 스피드마스터 내부에 사용된 오리지널 무브먼트로, 역사상 여섯 번의 달 착륙을 포함해 아폴로 미션 수행 시 우주 비행사들이 착용했던 시계에도 사용된 것이다. 이번 제품은 모든 사양을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다. 문의 02-6905-3301



**반클리프 아펠 반클리프 아펠 컬렉션** 불가리아 돌기 시작하는 2월 반클리프 아펠에서 프라볼 브라이덜릿을 제안한다. 엘로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구성된 브라이덜릿은 신들림에 충추는 꽃처럼 입체적이고 섬세한 디자인으로 완성했다. 문의 1688-1906

## JEWEL & WATCH FASHION



**홍블링 마이스터스틱 루즈 앤 느와 컬렉션** 몽블랑의 시그처 컬렉션 마이스터스틱을 새롭게 선보이는 루즈 앤 느와 컬렉션은 안년된 검은 호랑이 해를 맞이해 블랙 레더 위에 타이거 프린트 디자인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미니 리포터 백, 체스트 백 등 기존 몽블랑에서 찾아볼 수 없던 콤팩트한 백으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1670-4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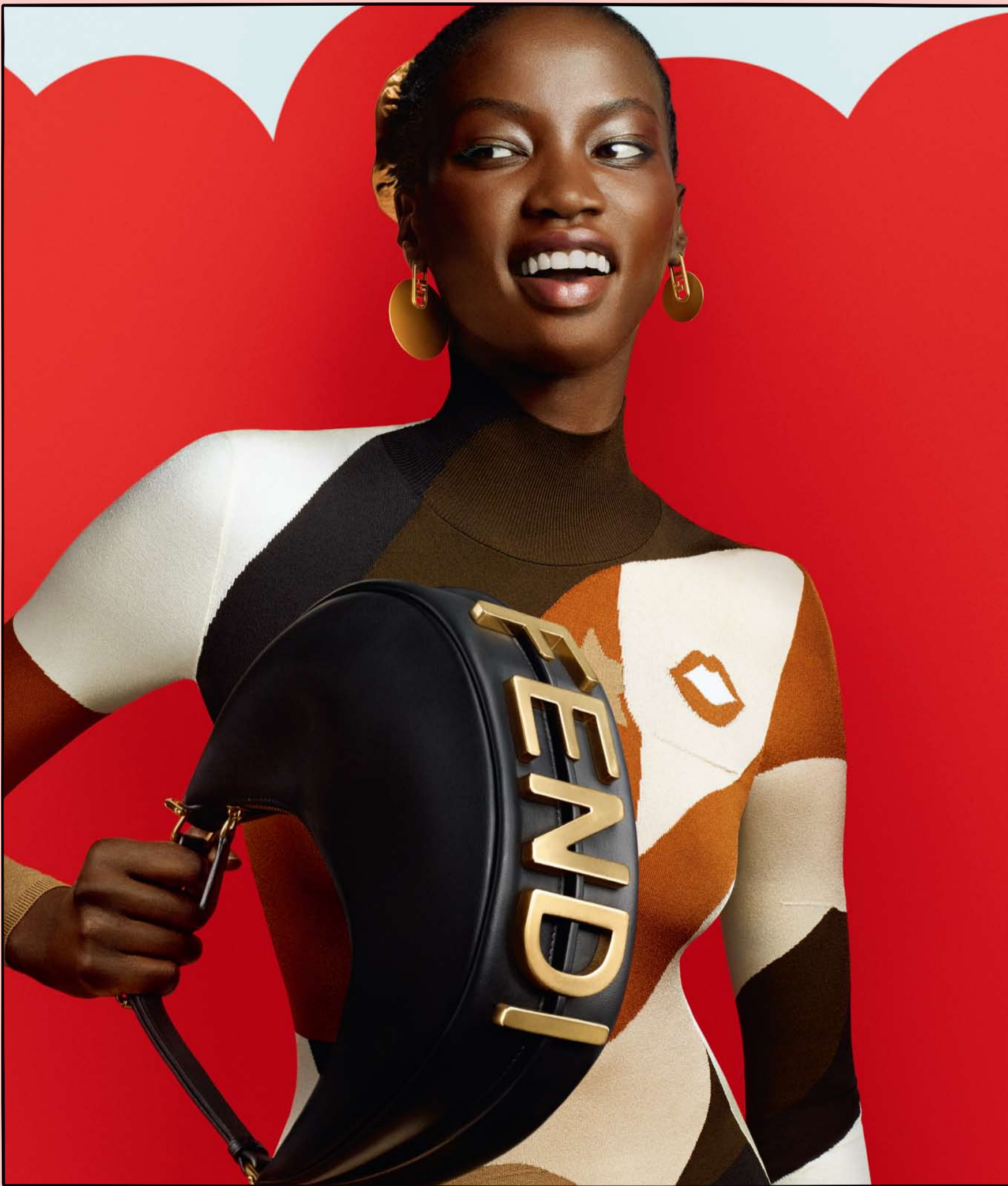
**구찌 구찌 타이거 컬렉션 2022년** 호랑이 해를 기념해 의류와 소품에 호랑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구찌 타이거 컬렉션을 공했다. 아이웨어, 실크 액세서리, 워치까지 새로운 프린트를 적용한 제품을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컬렉션 제품은 박스, 쇼핑백, 파우치 세트 등 구찌 타이거 프린트를 적용한 전용 리벨을 포함한 클루시브 테이 패키지로 제공하며, 모두 지속 가능한 소재로 제작했다. 문의 02-3452-1921



**파피어나 필리피 2022 S/S 여성 컬렉션** 파피어나 필리피는 2월의 룩으로 재퍼와 스카트를 제안한다. 블랙 컬러의 더블 쇼트 재킷은 워싱 가공한 코튼을 사용해 각 잡힌 실루엣이지만 7부 소매와 스퀘어 웨이스트로 한층 가벼운 볼 날 룩을 연출할 수 있으며, 플리츠스카트는 길이가 다른 두 겹을 레이어드해 자연스러운 타이로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2-6905-3626

파피어나 필리피





**FENDI**

**ROMA**